

2023

GLOBAL HUNGER INDEX

다음 세대와 함께 만들어가는 식량시스템



2023

GLOBAL HUNGER INDEX

다음 세대와 함께 만들어가는 식량시스템

Klaus von Grebmer, Jill Bernstein, Miriam Wiemers, Laura Reiner, Marilena Bachmeier, Asja Hanano, Réiseal Ní Chéilleachair, Connell Foley, Tim Sheehan, Seth Gitter, Grace Larocque, and Heidi Fritschel

Guest Authors

Wendy Geza and Mendy Ndlovu (Centre for Transformative Agricultural and Food Systems, School of Agricultural,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University of KwaZulu-Natal, South Africa)

Bonn / Dublin
October 2023



To learn more, visit
www.globalhungerindex.org
#GHI2023

A Peer-Reviewed Publication





청년이 식량시스템 변혁에 주체가 되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지식 및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남수단 아웨일의 이스 알룩(Yith Aluk)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목 뎡 피올(Amok Deng Piol)이 학교 급식을 들고 가는 중이다.
학교 급식은 학생의 출석률 증가와 영양상태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수업에 대한 집중력을 향상시킨다.

FOREWORD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로 한 2030년까지 7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약 7억 5,000만 명의 인구가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기아나 그 원인은 모두 새롭지 않다. 우리가 소위 “복합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새롭다. 기후위기, 분쟁, 인플레이션 충격, 세계적인 팬데믹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과거에 여러 국가에서 이론 기아 퇴치를 더디게 하거나 오히려 퇴보시키고 있다.

2023년 세계기아지수(Global Hunger Index, GHI)에 따르면, 2015년까지 여러 해 동안 기아퇴치의 진전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대체로 정체 상태이다. 복합위기의 여파가 증대되고 심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으며 올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과 청년이 이러한 복합위기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올해 세계기아지수 보고서는 현재의 식량시스템이 청년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학자인 웬디 게자(Wendy Geza)와 멘디 느드루부(Mendy Ndlovu)는 세대의 관점에서 작성한 에세이에서, 현대의 청년은 지속 불가능하고 불평등하고 포용적이지 않은, 위험한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식량시스템을 이어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 그리고 취하지 못하는지 - 에 따라 미래에 식량시스템의 결과가 결정되겠지만, 향후 수십 년간 그 결과 속에서 살아 가야 하는 것은 현대의 청년들이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청년은 혹독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미래 세대의 건강과 영양 상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청년은 성인보다 극심한 빈곤과 식량 불안정에 처할 확률이 높으며 특히 젊은 여성이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청년은 성인에 비해 실업자가 될 확률이 3배 높다. 청년은 식량시스템에 생산적으로 관여할 자원, 토지, 기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난관과 더불어 기후위기 문제, 토지 황폐화,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환경, 어렵거나 위험한 근로 환경과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때문에 다수의 청년은 농업활동이나 농촌생활에 등을 돌리고 있다.

비록 청년의 의견이 식량시스템 관련 정책과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년은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정당한 이익이 있으며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청년은 성인과 동등한 식량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 청년기에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양질의 영양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식량 불안정을 겪는 국가에서 청년인구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42%가 25세 미만이며 청소년 및 젊은 성인의 인구수는 12억 명에 달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보고서는 청년의 경험을 조명하고, 다양성을 가진 청년들이 지속가능하고 공평하며 회복력있는 미래를 위해 오늘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계기아원조(WHH)와 컨선월드와이드(Concern Worldwide)는 식량시스템과 관련된 정책 및 의사결정 과정에 보다 많은 청년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청년이 식량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농업, 식량시스템이 실행 가능하고 매력적인 생계기반이라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 청년이 지도자가 되도록 지원한다면 이들은 잠재력을 발휘해 변화를 이끄는 혁신적인 주체가 되어 에너지와 역동성을 동원해 식량시스템을 변혁시킬 것이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각국 정부는 2030년까지 기아 종식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 이후에도 식량시스템 변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현재 굶주린 채 잠드는 수백만 명의 식량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분쟁과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에 책임이 없음에도 그 짐을 짊어질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위해 식량에 대한 권리가 존중, 보호받으며 이해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티아스 모게 Mathias Mogge
사무총장
세계기아원조 Welthungerhilfe



데이비드 리건 David Regan
CEO
컨선월드와이드 Concern Worldwide

CONTENTS



SUMMARY	5
CHAPTERS	
01 세계·지역·국가별 추이	6
02 2030년을 넘어서: 청년, 식량시스템 그리고 식량 주권의 미래	22
03 정책 권고	34
APPENDIXES	
A 세계기아지수 산출 방법론	37
B 2000, 2008, 2015, 2023년 세계기아지수 산출 기초자료	39
C 2000, 2008, 2015, 2023년 세계기아지수 점수 및 2015년 이후 변화 추이	42
D 2023년 지역별 및 국가별 세계기아지수 점수	43
E 세계기아지수 산출공식	47
PARTNERS	48

SUMMARY

기아 퇴치의 세계적 진전은 대체로 정체되었다

올해 세계기아지수에 따르면, 기아 해소에 큰 진전을 이룬 국가도 있지만, 2015년 이후 세계의 기아 감소 성과는 미미하다. 2023년 세계기아지수 점수는 18.3으로 '보통' 수준이며 2015년의 19.1보다 1점 미만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세계기아지수 계산에 사용하는 지표 중의 하나인 영양결핍률이 2017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영양결핍 인구수가 5억 7,200만 명에서 7억 3,500만 명으로 증가했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세계기아지수 점수는 각각 27.0인 '심각'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아 수준을 기록했다. 이 두 지역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기아 수준을 보였다. 두 지역은 2000년에서 2015년까지 기아 해소에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2015년 이후 거의 정체 상태로 전 세계적인 기아 퇴치 정체를 반영하고 있다.

43개국의 기아지수는 '심각' 또는 '위험' 수준

2023년 세계기아지수 점수 및 잠정 분류에 따르면, 9개 국가(남수단, 니제르,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부룬디, 소말리아, 예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의 기아 수준이 '위험' 수준이고 34개국이 '심각' 수준이다.

최근 몇 년간 많은 국가의 기아 수준이 악화되고 있다. 2015년 이후 18개국의 2023년 세계기아지수 점수가 '보통', '심각', 또는 '위험' 수준으로 증가했다. 2023년 세계기아지수가 '보통', '심각' 또는 '위험' 수준인 14개국의 세계기아지수 점수가 2015년 대비 2023년에 5% 미만 감소해, 이 기간 동안 미미한 성과를 보였다. 현재 추세라면 2030년까지 58개국은 기아 수준을 '낮음' 수준으로 낮추는데 실패할 것이라 예측된다. 하지만 성과를 보인 국가들도 있다. 2000년 기아지수가 '극히 위험' 수준이었던 7개 국가(니제르, 소말리아,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티오피아, 잠비아, 차드)는 2000년 이후 진전을 이루었다. 또한 7개국(네팔, 동티모르,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라오스, 지부티, 차드)은 2015년 대비 2023년 세계기아지수 점수가 5점 이상 감소했다. 전 세계가 처한 위기 및 최근 몇 년간 기아 개선이 정체기에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7개국의 세계기아지수 점수 감소는 놀라운 성과이다.

복합위기는 기아 퇴치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다수의 무력 분쟁과 기후재해 등의 복합위기로 일부 국가는 식량 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며 또 다른 일부 국가는 비교적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 위기에 더 취약한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는 고소득 국가에 비해 더 큰 타격을 입었다. 국가의 취약성, 불평등, 부실한 거버넌스 그리고 만성 빈곤 등의 내재적 요인이 국가의 회복력을 가능하게 하는 척도다. 세계는 앞으로 여러 해 동안 기후변화의 여파로 더 많은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효과적인 재난 대비 능력과 재난 대응력을 갖추는 것이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식량시스템 변혁에 청년이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

청년들은 식량과 영양안보를 보장받지 못하고, 기후변화와 환경악화에 매우 취약하며 불평등하고 지속가능하지 못한 식량시스템 속에서 성인기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의사결정 과정에 청년은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식량 주권(생태계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된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량에 대한 국민 권리)의 추구를 통해 결함 있는 식량 시스템을 변혁시키는 데 청년 참여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청년들은 그들의 에너지와 혁신성을 발휘하여 더욱 지속가능한 식량체계를 구축하고 전 세계 사람들, 특히 가장 취약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2030년 이후까지 고려하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현재 식량시스템 정책과 이에 대한 투자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세대 간 전이 되는 기아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해결책은 2030년 이후까지 고려한 장기적 관점이 필요하고, 청년들의 생계기반, 선택권을 반영해야 한다. 식량권은 식량시스템 정책, 프로그램, 그리고 거버넌스 프로세스에 핵심이 되어야 하며, 사람들이 사회적, 문화적, 생태적으로 자신의 지역적 맥락에 맞게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이 식량시스템 변혁을 이루는 지도자가 되도록 그들의 역량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청년의 교육과 기술 개발은 물론 건강과 영양 증진을 위해 투자해야 함을 의미한다. 정부는 성별에 구별없이 청년 모두에게 자원 및 경제적, 사회적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지역사회의 생산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농작물과 시장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투자해야 한다. 또한 근로환경 개선과 공정한 임금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 이처럼 정비된 식량시스템을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실현 가능하고 매력적인 생활기반을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2023 세계기아지수(GHI)에서 말하는 청년(Youth)

청년을 나이로 기준으로 정의할 경우, UN은 청년을 15세~24세로 정의하며, 아프리카 연합은 15세~35세로, 대한민국은 청년기본법에 근거해 19세~34세로 규정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일컫는 '청년'은 신체적으로 영양섭취를 통해 성장하는 10대부터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식량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30대에 이르기까지 보다 광범위한 젊은 연령층을 의미한다.

01



엄마와 아이 모두의 건강과 영양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받은
네팔의 한 엄마가 아이와 함께 채소를 다듬고 있다.

그러나 젊은 여성들은 종종 무급 돌봄노동(Unpaid Care Work)을
집어지기 때문에 교육을 받거나 소득 창출 기회를 잃고 있다.

세계·지역·국가별 추이

주: 2023년 세계기아지수 보고서의 결과는 이전의 모든 보고서 결과를 대체한다. 동 보고서에 포함된 2000년, 2008년 및 2015년 점수와 지표 데이터는 시간 경과에 따른 세계기아지수를 유효하게 비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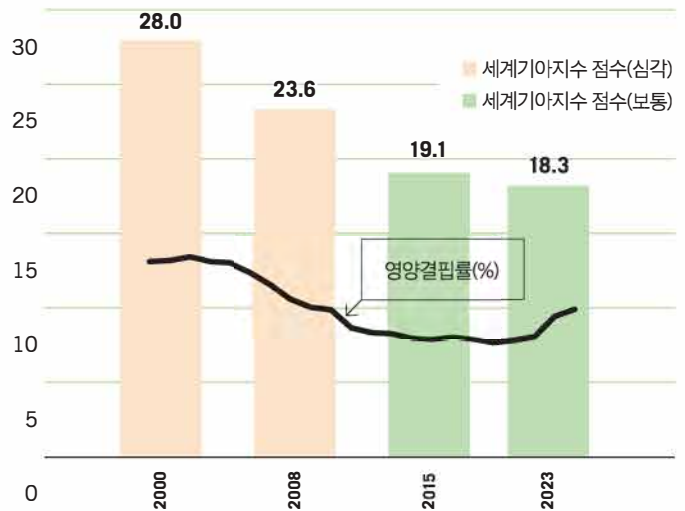
주요 메시지

- 세계기아 수준은 여전히 너무 높고, 기아 감소에 대한 진전은 대체로 정체되었다. 2023년 세계기아지수 점수는 18.3으로 2015년 19.1에서 1.0점 미만으로 하락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된다. 매일 약 7억 5,000만 명의 사람들의 충분한 식량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 2015년 대비 이러한 정체현상은 여러 위기가 겹치면서 발생한 결과를 반영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경기침체, 기후변화의 영향, 그리고 세계 각국의 분쟁 등이 복합적인 위기를 초래했다. 이 위기들이 맞물려 '생활비 위기'를 초래했고, 여러 국가, 특히 식량 및 영양안보를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과 권력 불균형으로 인해 위기 발생 이전부터 높은 기아 수준을 기록했던 국가들의 위기 대응 역량을 저하시켰다.
- 복합적인 위기로 지역, 국가, 단체 간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어떤 국가들은 위기를 비교적 잘 극복한 반면, 일부 국가의 기아와 영양결핍 문제는 더 악화되었다.
-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식량 가격 상승이 세계에 미친 영향이 2023년에는 다소 완화되었을 수 있으나, 기후 조건은 악화되고 있으며 여러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높은 식량 가격 때문에 여전히 식량을 구매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세계에서 회복력이 약한 지역과 국가에서는 지속적인 기아와 영양결핍을 겪을 것이며 미래 위기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 추세대로라면 2030년까지도 58개국은 기아 수준을 '낮음' 수준으로 낮추는 데 실패할 것이며,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 설정한 2030년 목표 대비 모든 세계기아지수 지표가 달성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영양결핍률, 아동 발육부진율, 아동 저체중률, 아동 사망률이 목표치에서 뒤떨어져 있다.
-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의 청년은 식량안보와 영양 위기에 더욱 취약하다. 청년의 건강과 영양상태가 다음 세대의 안녕과 직결되기에 이러한 취약성은 더욱 염려스럽다.

세계적 추이: 복합위기에 직면해 기아 퇴치의 진전은 정체되었다

2023년 세계기아지수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기아 감소에 대한 진전은 미미하다. 2023년 세계기아지수 점수는 18.3으로 '보통'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19.1 대비 1.0점 미만으로 하락한 수치로 기아 퇴치의 진전이 크게 정체되었음을 시사한다. 반면, 2000년에서 2008년, 그리고 2015년까지 세계는 기아퇴치에 있어서 큰 성과를 이루었다. 세계기아지수 점수를 산정하는데 이용되는 지표 중의 하나인 영양결핍률은 2017년 7.5%에서 2022년 9.2%로 증가했다(그림 1.1). 이 기간 동안 영양결핍을 겪은 전 세계 인구 수는 5억 7,200만 명에서 7억 3,500만 명으로 증가했다(FAO et al. 2023a). 2023년 세계기아지수 점수는 2018-2022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했으며 동 기간 동안 세계기아지수 계산에 사용되는 4가지 구성 지표의 최신 데이터를 포함한다(Appendix A 참조). 대다수의 데이터가 2020년 및 그 이후 데이터이므로 이전 세계기아지수 보고서에 비해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더욱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림 1.1 최근 10년간 전 세계 세계기아지수 점수와 영양결핍 추이



주: 세계기아지수 점수는 기아의 4개의 구성요소 지표를 토대로 계산한다. 4개의 지표 중 하나인 영양결핍률은 섭취하는 칼로리의 양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2000년 세계기아지수 점수는 1998-2002년, 2008년 점수는 2006-2010년, 2015년 세계기아지수 점수는 2013-2017년, 2023년 점수는 2018-2022년 데이터를 포함한다. 영양결핍에 대한 데이터 출처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이다(2023) 영양결핍 수치는 세계기아지수에 제외된 국가를 모두 포함한 전 세계 수치이다. 세계기아지수 점수 산출에 사용된 전체 데이터 출처 리스트는 Appendix A에 있다.

박스 1.1 세계기아지수 점수

세계기아지수(GHI)는 전 세계,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기아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추적하는 도구이다. 세계기아지수 점수는 4가지 구성 요소 지표의 값을 산출한다.¹



영양결핍(Undernourishment)

영양결핍을 겪는 인구의 비율(섭취하는 칼로리의 양이 부족한 인구)



아동 저체중(Child Wasting)

체중이 미달인 5세 미만 아동의 비율(신장에 비해 체중이 가벼운 것으로, 급성 영양 부족의 결과)



아동 발육부진(Child Stun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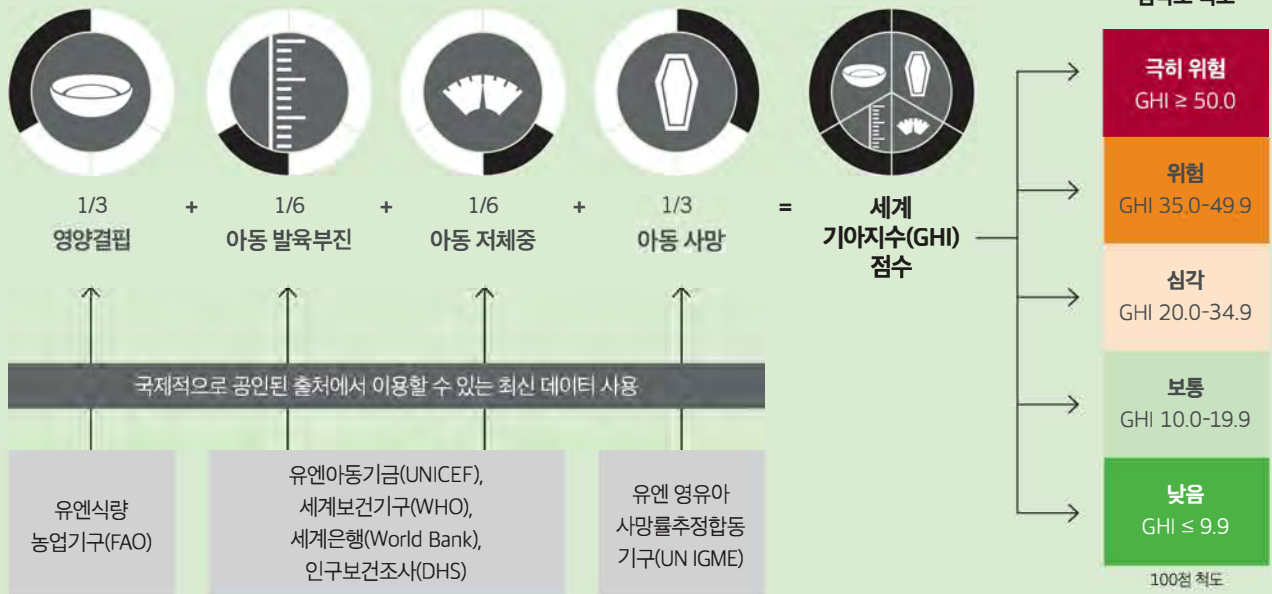
발육이 부진한 5세 미만 아동의 비율(연령 대비 신장이 작은 것으로, 만성 영양 부족의 결과)



아동 사망(Child Mortality)

5세 미만 아동의 사망 비율(불충분한 영양섭취와 비위생적인 환경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치명적인 결과)

이 네 가지 지표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4가지 구성 요소의 지표값을 바탕으로 기아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100점 척도로 세계기아지수 점수를 산출하며, 0은 기아가 없는 가장 최고점, 100은 가장 최저점이다.² 각 국가의 세계기아지수 점수 심각도에 따라 '낮음'에서 '극히 위험'으로 분류된다.

¹ 각 지표는 표준화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Appendix A 참조

² 세계기아지수 점수는 다른 연도 보고서 간 수치를 상호 비교하지 않으며, 각 연도 보고서 내에서만 비교치를 제공한다. 시간 경과에 따른 국가 또는 지역의 세계기아지수 성과를 추적할 수 있도록 동 보고서는 2000년, 2008년 및 2015년 세계기아지수 점수를 제공한다. GHI의 개념, 데이터 범위, 점수 계산 및 결과 해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ppendix A 참조

2023년 세계기아지수 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다수의 무력 분쟁 및 기후재난 등의 국내외적인 위기가 전 세계에서 중첩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복합위기로 일부 국가는 식량위기를 겪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비교적 강한 회복력으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IFPRI 2023). 고소득 국가에 비해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가 더욱 크게 타격을 입었다(FAO et al. 2023a). 국가의 회복력을 가능할 수 있는 척도는 국가의 취약성, 불평등, 부실한 거버넌스 그리고 만성 빈곤 등을 바탕으로 한다. 특히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더 큰 충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식량안보 문제는 점점 더 재난대비능력과 대응력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IFPRI 2023).

2023년 여러 국가가 극심한 기아에 시달리고 있으며 연말까지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세계기아지수 데이터가 아직 2023년의 전체 상황을 반영하지는 못했지만(Appendix A 참조), 조기 경보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여러 지역과 국가에서 현재 위기를 겪고 있다. 2023년 가장 우려되는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아이티,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예멘, 그리고 사헬 지대에 속한 부르키나파소와 말리이다. 분쟁과 기후 변화가 복합위기를 불러오는 주요 원인이지만, 경기침체는 이보다 훨씬 파괴력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WFP and FAO 202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세계 식량 가격 급등을 초래했고 계속해서 식량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곡물과 비료 생산량은 세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 교란은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2022년 2월, 곡물 공급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식량 가격이 급등한 것이 그 예이다. 2022년 7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체결한 흑해곡물협정(The Black Sea Initiative)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허용하고 세계 시장을 안정시켰다(Glauber et al. 2023). 그러나 이 협정이 연장 없이 2023년 현재 만료된 점, 우크라이나의 노바 카호우카 댐(Nova Kakhovka Dam)이 파괴되었다는 점 등은 전 세계가 이처럼 불안정한 지역의 식량 수출에 공급을 의존하고 있었다는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다(Glauber et al. 2023; Reuters 2023).³

“하나의 상황은 또 다른 상황을 초래합니다. 무장 괴한에 의해 길이 막히면 여성 상인들은 이 경로를 이용할 수 없어, 가지고 있던 식량을 폐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식량을 가진 사람이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비축한 식량이 떨어지면, 우리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더 구할 수 없습니다.”

- 알렉시스 루어드로나(Alexis Lourdrone, 21세), 아이티

“사람들이 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와중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 식량 가격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하루 세 끼를 챙겨 먹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한 끼나 최대 두 끼로 근근이 버티고 있어요. 분쟁이 존재하지 않았던 평범한 일상과는 다릅니다.”

- 모하메드 알리 모하메드(Mohamed Ali Mohamed, 20세), 소말리아

오늘날 청년들은 식량 위기의 악영향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합된 행동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다가오는 재해의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세계기아지수는 현 추세대로라면 2030년까지 58개국 이 기아 수준을 ‘낮음’ 수준으로 낮추지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⁴ 세계기아지수를 측정하는 4개 지표(영양결핍률, 아동 발육부진율, 아동 저체중률, 아동 사망률) 중 어떤 것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 설정한 2030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모두 목표치에서 뒤떨어져 있다(FAO et al. 2023a; UNICEF et al. 2023b; UN IGME2023b). 아동과 청년이 필요한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할 경우 미래의 사회 및 경제적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며 그 결과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것이다.

3 2023년 7월 17일 러시아는 흑해곡물협정 중단을 선언해 세계기아지수 보고서가 언론에 발표된 시점에 협정이 중단된 상태였다(BONNELL 2023).

4 2030년에 대한 예측은 2000년, 2008년, 2015년 및 2023년 각국의 세계기아지수 점수를 바탕으로 한 선형 추세 예측이며, 지수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된 국가만 분석에 포함됐다. 이 예측은 추후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거나 기존 데이터가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세계기아지수 보고서의 예측과 비교할 수 없다.

그림 1.2 2000년 이후 기아: 진전과 정체의 시기

2000년 이후 세계는 기아 감소를 달성하는 데 진전을 보였지만, 43개국의 기아 수준은 여전히 '심각' 수준이거나 '위험' 수준이다.

2023 세계기아지수에 따르면
2000년에는...



2000년 이후에는...



2023
세계기아지수에 의하면...



■ = 낮음 ■ = 보통 ■ = 심각 ■ = 위험 ■ = 극히 위험

기아수준은 구조적 영향을 받는다



불평등과 빈곤 수준



거버넌스의 질



인구통계

더불어 충격과 위기의 영향도 받는다



경기침체



극단적인 기후현상



분쟁

주: 2023년 세계기아지수 상 결과가 잠정적으로 분류된 4개국은 비교군인 2000년에 세계기아지수 측정 대상이 아니었고 잠정분류국도 아니었다. 또 다른 4개국도 2000년 당시에는 지도에 존재하지 않는 국가였다. 따라서 해당 국가들은 2023년 세계기아지수에는 포함되었지만 2000년부터 2023년 이전까지 추이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2015년 이후, 기아 퇴치는 정체되었다

2023년 세계기아지수 점수는 18.3으로 '보통' 수준이며 이는 2015년 기아지수 점수인 19.1 대비 1.0 미만 감소한 수준이다.



14개국의 기아 퇴치 상황은 정체되었다. 이들 국가의 기아지수 점수는 2015년 점수보다 5% 미만 하락했다.



2023년 세계기아지수 점수가 '보통', '심각' 이거나 '위험' 수준인 18개국의 기아 수준은 2015년 이후 악화됐다.

세계는 2030년까지 '기아 종식(Zero Hunger)' 달성을 약속했지만, 현 추세라면 2030년까지 58개국은 기아수준을 '낮음' 수준으로 낮추는 것은 물론 기아 종식에 실패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아 퇴치 진전을 보인 국가

세계가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고 최근 몇 년간 기아 퇴치 상황이 정체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차드** 등 일부 국가는 2015년 이후 기아 퇴치에 놀라운 진전을 보였다.

주: 각 국가의 세계기아지수 점수 및 연도별 변화는 표 1.1 과 Appendix C에 있다.

지역적 추이: 전 세계 지역별 주요 원인

기아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로 세계기아지수 점수가 모두 27.0을 기록해 '심각' 수준을 나타냈다. 두 지역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기아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2000년 기아지수는 '위험' 수준을, 2008년과 2015년 기아지수는 '심각' 수준을 기록했다.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2000년에서 2015년 사이 기아퇴치에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으나, 2015년과 2023년 지수를 각각 비교했을 때는 두 지역 모두 성과가 거의 정체되고 있다. 이는 세계의 기아퇴치 상황이 정체되고 있는 추이를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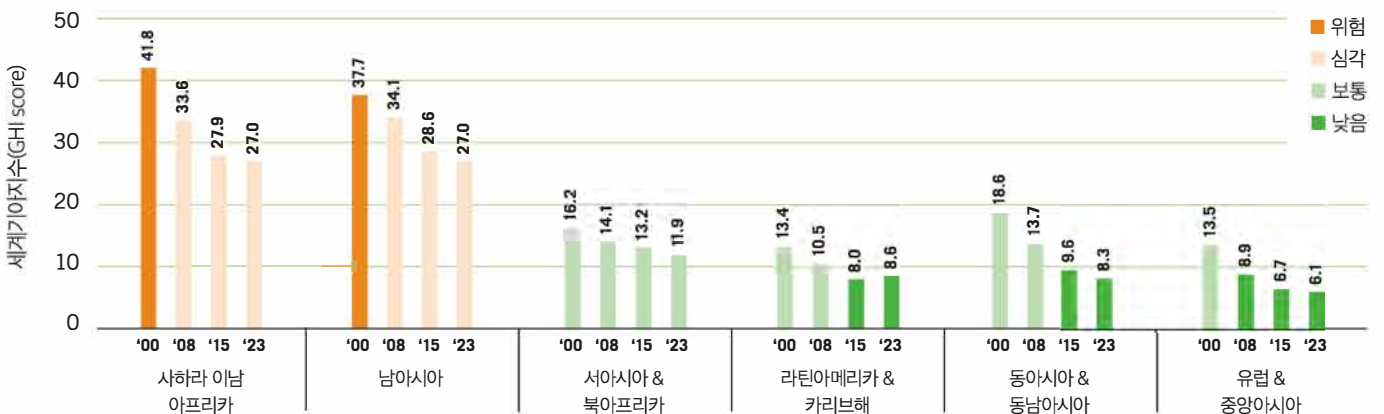
남아시아의 세계기아지수 점수와 지표값들은 전체 인구의 영양결핍뿐만 아니라 아동 영양결핍률도 심각하게 높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2022년 남아시아의 아동 저체중률은 14.8%로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 높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6%보다 2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이다(UNICEF et al. 2023b). 남아시아의 아동 저체중률은 출생 시와 유아기 때 가장 높으며 2세까지 저체중 양상을 보인다. 이는 이 지역의 높은 아동 저체중률이 산모의 부실한 영양상태에 기인한다는 점을 시사한다(Banerjee et al. 2022; Torlesse and Tram Le 2020). 남아시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보다 키가 작고 마른 여성의 비율이 높다. 그리고 빈곤하고 교육 기회가 적은 여성일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여성에 비해 저체중 아기를 출산할 확률이 높다(Sathi et al. 2022). 또한 남아시아에서 아동 저체중과 아동 발육부진이 동

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Torlesse and Tram Le 2020). 남아시아의 아동 발육부진율은 31.4%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31.5%와 거의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UNICEF et al. 2023). 한편,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이 지역의 영양결핍률이 2014-2016년 13.5%에서 2020-2022년 15.9%로 상승했다(FAO 2023; Schipper et al. 202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영양결핍률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 높은 21.7%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0-2012년 16.8% 대비 상당히 상승한 수치다(FAO 2023).⁵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아동 사망률은 7.4%로 이 또한 세계 어느 지역보다 높다(UN IGME 2023b). 앞서 남아시아 통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아동 발육부진율은 31.5%로 남아시아의 31.4%와 거의 동일한 수치이다(UNICEF et al. 2023b). 기후변화는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요인과 맞물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식량 불안정을 증대시켰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농업생산과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뭄 등 극단적인 기후현상이 불균등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높은 빈곤과 기아 수준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Kemoe et al. 2022).

5 이 수치 계산에 수단을 포함했으며 FAO가 계산을 위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북아프리카를 한데 묶은 것이다.

그림 1.3 2000년, 2008년, 2015년, 2023년 지역 세계기아지수 점수



출처: 필진

주: 데이터 자료는 Appendix A 참조. 각 지역별 및 글로벌 세계기아지수 점수는 지역별, 글로벌 합산점을 활용했으며 계산방법은 Appendix A에 있다.

각 지표의 지역별 및 글로벌 합산점은 인구 가중 평균값이며 Appendix B에 나온 지표값을 활용했다. 영양결핍 데이터가 부족한 국가는 FAO가 제공한 추측 값이며, Appendix B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아프리카는 영양결핍 인구수가 2022년 2억 8,200만 명에서 2030년 2억 9,800만 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FAO et al. 2023a).

2023년 세계기아지수에 따르면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기아 수준이 세 번째로 높은 지역이다. 2023년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의 기아지수 점수는 11.9로 '보통' 수준을 기록했다.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예멘과 시리아는 이 지역 중 2023년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로 각각 39.9와 26.1을 기록했다. 이 지역은 극심해진 물 부족과 기후변화 여파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Belhaj and Soliman 2021; Webrey and Fawal 2022). 기후변화 자체와 그것이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급격한 인구 증가 탓에 이 지역의 식량 수입 의존이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Le Mouél et al. 2023). 이처럼 자원제약이 심해지면 지역적 거버넌스 문제가 악화되어 향후 분쟁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Webrey and Fawal 2022).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은 2015년 이후 세계기아지수 점수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특히 우려된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은 이 기간 동안 기아지수 점수가 증가한 유일한 지역이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9개국의 기아지수는 2015년 이후 증가했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건강한 한 끼 식사의 평균 비용은 세계의 그 어느 지역보다 비싸며 식량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소득 불평등이 높다. 이러한 요인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와 맞물려 지역의 기아 수준을 악화시켰다(이 지역은 특히 감염병 치명률과 인력 감축 측면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타격을 심하게 입었다) (FAO et al. 2023b).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이 있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2023년 세계기아지수 점수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다. 중국 인구는 이 지역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며(UN DESA 2022), 중국의 2023년 기아지수 점수는 5.0 미만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지역 내 다른 국가의 2023년 기아지수 점수는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 동티모르, 북한, 파푸아 뉴기니의 기아지수는 '심각' 수준이다. 또한 다른 국가들의 기아지수는 '보통' 수준인 반면, 몽골, 중국, 피지의 기아지수는 '낮음' 수준이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식단은 밀이나 다른 곡물이 아닌 쌀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을 비교적 덜 받았다. 그러나 파키스탄 대홍수와 2023년 엘니뇨 현상이 쌀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쌀 가격 인상을 초래해 머지않아 주식인 쌀의 가용성과 접근성이 저해될 수도 있다(Mamun and Glauber 2023).

유럽과 중앙아시아는 2023년 세계기아지수 점수가 6.1인 '낮음' 수준으로, 세계에서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이 지역의 기아지수가 '낮음'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일부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다. 2020-2022년, 동유럽 인구의 10.5%와 중앙아시아 인구의 18.4%는 보통정도나 심각한 수준의 식량 불안정을 경험했다(FAO et al. 2023a). FAO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농촌 인구의 47%가 사회보장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EU에서 GDP의 19.3%를 사회보장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는 반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는 GDP의 10.1% 만을 투자하고 있다(FAO 2022)⁶.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자국의 식량안보를 명백히 저해하고 있으며 생산량 하락, 농업활동에 필요한 투입비, 보관 및 운송비용을 증가시켜 식량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마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유럽과 중앙아시아 전역의 식량 가격 폭등으로 최근 몇 년간 사람들은 식량 구매에 제약 받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중앙아시아에서 식량안보문제가 빈곤과 관련된 최대의 걱정거리로 나타났다.

세계기아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북아메리카와 일부 유럽 국가도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다. 세계기아지수 평가 대상은 2000년까지 영양결핍률과 아동 사망률 데이터에 기반해 결정한다. 2000년 이후 두 지표 중 하나 또는 두 개 모두의 수치가 기준점인 '극히 낮음' 수준보다 높은 국가만 세계기아지수 평가 대상이 된다(기아지수 포함 기준은 Appendix A 참조). 이 기준에 따라, 북아메리카, 북유럽, 남유럽 및 서유럽의 다수 국가는 기아지수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0-2022년 북미⁷인구의 7.8%가 보통이나 심각한 식량 불안정을 겪었으며, 북유럽 인구의 5.1%, 남유럽 인구의 8.5%, 서유럽 인구의 4.9%도 동일했다(FAO et al. 2023a). 보통이나 심각한 식량 불안정을 겪은 북미와 유럽 지역은 2021년과 2022년 사이 그 정도가 약간 심화되었으며 이러한 심화현상은 남유럽을 제외한 모든 유럽 지역에서 나타났다(FAO 2023; FAO et al. 2023a). 자국의 식품가격 상승은 북아메리카와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저소득 및 고소득 국가 모두에게 부담이 되었다(World Bank 2023a).

6 이 연구는 기아지수 평가에서 유럽과 중앙아시아로 분류된 18개 국가와 영령(코소보와 튀르키예 제외)을 포함시켰다.

7 엄밀하게는 다른 지역을 지칭하는 '북아메리카(North America)'와 '북미(Northern America)'라는 용어를 인용한 출처에서 사용한 용어 개념에 따라 여기서 모두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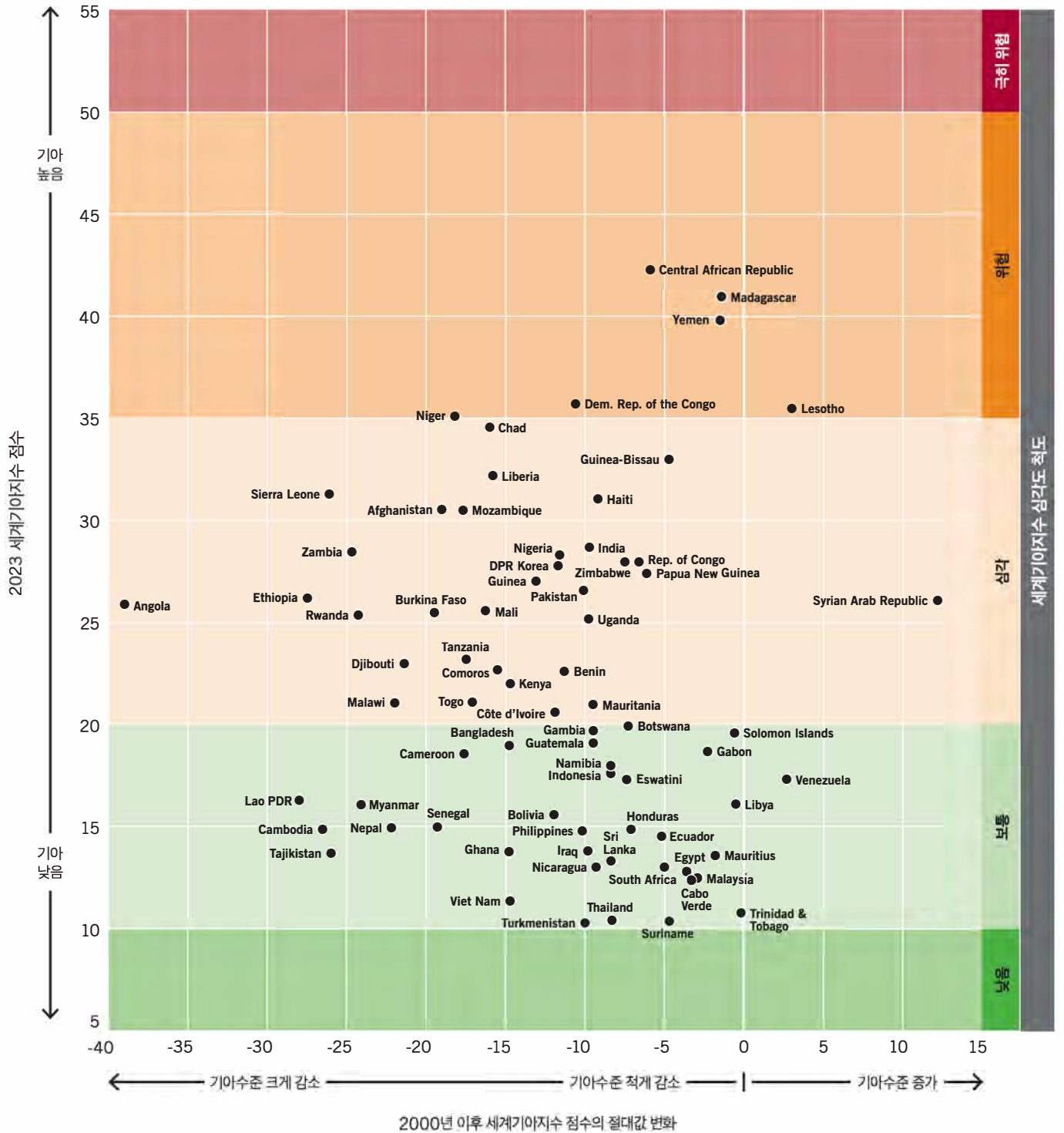
표 1.1 2023년 세계기아지수 순위별 점수

참고: 표의 순위와 점수는 이전 보고서들과 정밀하게 비교할 수 없다(Appendix A 참조)

순위 ¹	국가	2000	2008	2015	2023	순위 ¹	국가	2000	2008	2015	2023
2023 GI에 점수 5점 미만, 종합 순위 1~20위	Belarus	<5	<5	<5	<5	69	Senegal	34.3	21.8	18.0	15.0
	Bosnia & Herzegovina	9.4	6.5	5.3	<5	71	Bolivia (Plurinational State of)	27.6	22.1	14.7	15.6
	Chile	<5	<5	<5	<5	72	Libya	16.6	12.8	18.5	16.1
	China	13.4	7.1	<5	<5	72	Myanmar	40.2	29.7	17.3	16.1
	Croatia	<5	<5	<5	<5	74	Lao PDR	44.3	30.4	21.8	16.3
	Estonia	<5	<5	<5	<5	75	Eswatini	24.7	25.0	19.3	17.3
	Georgia	12.1	6.6	<5	<5	75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14.6	8.8	11.1	17.3
	Hungary	6.7	5.6	5.0	<5	77	Indonesia	26.0	28.5	21.9	17.6
	Kuwait	<5	<5	<5	<5	78	Namibia	26.4	29.2	22.2	18.0
	Latvia	<5	<5	<5	<5	79	Cameroon	36.0	29.0	20.7	18.6
	Lithuania	7.6	5.1	<5	<5	80	Gabon	21.0	20.2	17.3	18.7
	Moldova (Republic of)	18.6	17.0	<5	<5	81	Bangladesh	33.8	30.6	26.2	19.0
	Montenegro	—	5.2	<5	<5	82	Guatemala	28.6	24.0	20.6	19.1
	North Macedonia	7.5	5.3	5.3	<5	83	Solomon Islands	20.2	18.2	23.4	19.6
	Romania	7.9	5.8	5.1	<5	84	Gambia	29.2	24.9	24.3	19.7
	Serbia	—	5.8	<5	<5	85	Botswana	27.2	26.8	22.2	19.9
	Slovakia	7.2	5.7	5.7	<5	*	Jordan	—	—	—	10-19.9*
	Türkiye	10.1	5.7	<5	<5	86	Côte d'Ivoire	32.5	36.0	22.1	20.6
	United Arab Emirates	<5	6.8	5.6	<5	87	Mauritania	30.5	18.8	22.4	21.0
	Uruguay	7.6	5.3	<5	<5	88	Malawi	43.1	29.2	22.9	21.1
21	Uzbekistan	24.2	14.9	5.9	5.0	88	Togo	38.2	29.6	25.7	21.1
22	Costa Rica	6.9	<5	<5	5.1	90	Kenya	36.7	29.5	22.5	22.0
23	Bulgaria	8.6	7.7	7.3	5.4	91	Benin	33.9	26.4	23.3	22.6
24	Kazakhstan	11.3	11.0	5.7	5.5	92	Comoros	38.2	30.4	24.0	22.7
25	Armenia	19.2	11.7	6.3	5.6	93	Djibouti	44.4	33.9	29.6	23.0
26	Russian Federation	10.2	5.8	6.3	5.8	94	Tanzania (United Rep. of)	40.7	30.2	24.6	23.2
27	Tunisia	10.3	7.4	6.4	5.9	95	Uganda	35.0	29.0	27.8	25.2
28	Mexico	10.2	9.9	6.7	6.0	96	Rwanda	49.7	33.1	28.3	25.4
28	Paraguay	11.8	10.1	5.1	6.0	97	Burkina Faso	45.0	33.7	28.0	25.5
30	Albania	16.4	15.5	8.8	6.1	98	Mali	41.9	32.2	27.1	25.6
31	Argentina	6.8	5.5	5.3	6.4	99	Angola	64.9	42.9	25.7	25.9
32	Brazil	11.7	6.8	5.4	6.7	100	Syrian Arab Republic	13.9	16.2	23.9	26.1
33	Algeria	14.7	11.1	8.5	6.8	101	Ethiopia	53.3	40.5	26.5	26.2
34	Azerbaijan	24.9	15.0	9.3	6.9	102	Pakistan	36.7	31.3	28.8	26.6
35	Colombia	11.0	10.2	7.5	7.0	103	Sudan	—	—	28.5	27.0
36	Peru	20.6	14.0	7.7	7.2	104	Guinea	40.2	29.3	28.4	27.1
37	Saudi Arabia	12.3	10.6	9.1	7.3	105	Papua New Guinea	33.5	32.9	28.5	27.4
38	Jamaica	8.5	8.6	8.6	7.5	106	DPR Korea	39.5	30.4	24.8	27.8
38	Kyrgyzstan	17.5	12.9	9.1	7.5	107	Congo (Republic of)	34.6	32.4	26.2	28.0
38	Mongolia	29.9	16.7	7.4	7.5	107	Zimbabwe	35.5	30.7	27.6	28.0
41	Iran (Islamic Republic of)	13.7	8.8	7.7	7.7	109	Nigeria	39.9	31.2	27.8	28.3
42	Panama	18.6	13.0	8.7	7.9	110	Zambia	53.2	44.9	33.2	28.5
43	El Salvador	14.7	12.0	9.8	8.1	111	India	38.4	35.5	29.2	28.7
44	Ukraine	13.0	7.1	7.1	8.2	112	Timor-Leste	—	46.5	35.9	29.9
45	Oman	14.8	11.2	11.2	8.3	113	Mozambique	48.2	35.6	37.0	30.5
46	Dominican Republic	15.1	13.9	9.4	8.6	114	Afghanistan	49.6	36.5	30.4	30.6
47	Morocco	15.8	12.2	9.1	9.0	115	Haiti	40.3	40.2	30.1	31.1
48	Guyana	17.2	15.1	11.3	9.3	116	Sierra Leone	57.4	45.4	32.8	31.3
49	Fiji	9.3	8.6	10.4	9.7	117	Liberia	48.0	36.4	32.9	32.2
*	Lebanon	—	—	—	0-9.9*	118	Guinea-Bissau	37.7	29.6	33.3	33.0
50	Turkmenistan	20.3	14.5	11.4	10.3	119	Chad	50.6	49.9	40.1	34.6
51	Suriname	15.1	11.0	10.6	10.4	120	Niger	53.3	39.5	35.2	35.1
51	Thailand	18.7	12.2	9.4	10.4	121	Lesotho	32.5	27.8	30.6	35.5
53	Trinidad & Tobago	11.0	10.7	10.7	10.8	122	Dem. Rep. of the Congo	46.3	40.2	36.4	35.7
54	Viet Nam	26.1	20.1	14.5	11.4	123	Yemen	41.4	37.8	42.1	39.9
55	Cabo Verde	15.7	12.4	14.6	12.4	124	Madagascar	42.4	36.6	38.9	41.0
56	Malaysia	15.4	13.7	12.0	12.5	125	Central African Republic	48.2	43.7	44.0	42.3
57	Egypt	16.4	16.9	15.2	12.8	*	Somalia	63.6	59.2	—	35-49.9*
58	Nicaragua	22.3	17.5	14.6	13.0	*	Burundi and South Sudan	—	—	—	35-49.9*
58	South Africa	18.0	16.8	13.9	13.0						
60	Sri Lanka	21.7	17.6	17.1	13.3						
61	Mauritius	15.4	13.9	13.5	13.6						
62	Ghana	28.5	22.2	15.7	13.7						
62	Tajikistan	40.1	29.9	16.9	13.7						
64	Iraq	23.6	20.3	16.5	13.8						
65	Ecuador	19.7	18.1	11.7	14.5						
66	Philippines	25.0	19.1	18.3	14.8						
67	Cambodia	41.4	25.6	19.0	14.9						
67	Honduras	22.0	19.2	15.0	14.9						
69	Nepal	37.2	29.0	21.3	15.0						

■ = 낮음 □ = 보통 □ = 심각 □ = 위험 ■ = 극히 위험
 주: 2023년 세계기아지수 보고서는 136개국의 데이터를 평가해 작성했다. 이 중에서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된 125개국의 세계기아지수 점수를 산출하고 순위를 매겼다(참고로, 2022년 보고서는 121개국의 순위를 매겼다).
 1 2023년 세계기아지수 점수에 따라 순위를 매겼다. 점수가 같은 국가는 순위가 같다(예를 들어, 멕시코와 파라과이의 순위는 모두 28위이다).
 2 세계기아지수 점수가 5점 미만인 20개국은 별도 순위를 매기지 않고 1-20위 사이라고 표시했다. 이들 국가의 점수 차이는 미미하다.
 — =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였다. 일부 국가는 당해 연도나 인용된 기간 당시에 현재 국경에 존재하지 않는 국가였다.
 * 11개국은 데이터 부족으로 점수나 순위를 매길 수 없었다. 이들 국가를 심각도에 따라 잠정 분류했다. 낮음은 1개국, 보통은 1개국, 그리고 위험은 3개국으로 분류했다. 6개국은 잠정 분류할 수 없었다(Appendix A의 표 A.3 참조).

그림 1.4 2023 세계기아지수 점수와 2000년 이후의 개선 추이



출처: 필진

주: 그림은 2000년 이후 세계기아지수 절댓값의 변화를 한 눈에 보여준다. 일부 국가는 데이터 부족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국가적 추이: 너무 많은 국가가 여전히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2023년 세계기아지수 점수와 잠정 분류 결과에 따르면, 9개국의 기아지수가 '위험' 수준이고 34개국의 기아지수가 '심각' 수준을 나타냈다.

2023년 기아지수가 '위험' 수준인 6개국은 니제르,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예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이며, 기아지수 점수 계산을 위한 데이터가 불충분해 '위험' 수준으로 잠정 분류된 3개 국가는 남수단, 부룬디, 소말리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올해 보고서에서 가장 높은 세계기아지수 점수(42.3)를 기록했다. 이 국가의 2020-2022년 영양결핍률은 48.7%로 인구의 거의 절반이 생활에 필요한 최소 칼로리를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 아동 10명 중 1명은 5세 이전에 사망하며, 아동 발육부진율은 40%이고 아동 저체중률은 5.3%이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최근 수년간 분쟁에 시달렸으며, 국내 실항민 발생, 만연한 빈곤, 불안전 고용 등이 기아의 동인이 되었다(United Nations 2022; WFP et al. 2022).

마다가스카르는 2023년 세계기아지수가 '위험' 수준의 41.0을 기록해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마다가스카르 인구의 절반 이상인 51%가 영양결핍에 허덕이고, 아동 발육부진율은 39.8%, 아동 저체중률은 7.2%, 아동 사망률은 6.6%이다. 마다가스카르는 기후변화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고 2021년과 2022년에 기근에 가까운 상황을 겪은 것은 기후변화가 초래한 역사상 최초의 기근으로 해석된다(Baker 2021; UN News 2021). 그러나 기후변화만이 유일한 위협은 아니며 뿌리 깊은 사회 구조적 약점과 부실한 거버넌스도 마다가스카르의 취약성을 심화시킨다(Rice 2022).

예멘은 2023년 세 번째로 높은 세계기아지수 점수(39.9)를 기록했다. 아동 영양결핍률이 만연한 예멘의 아동 발육부진율은 48.7%, 저체중 아동은 14.4%로, 올해 세계기아보고서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인구의 3분의 1 이상인 34.5%가 영양결핍을 겪고 있고 아동 사망률은 2015년 6.1%에서 2023년 6.2%로 상승했다. 2023년 세계기아지수에서 예멘을 제외하면 모리셔스, 베네수엘라, 피지 단 3개국의 아동 사망률만이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동 사망률이 상승 폭이 적다고 할지라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9년째 이어지고 있는 내전으로 예멘은 경제가 무너졌고 아이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UNICEF 2023c).

니제르, 레소토, 콩고민주공화국의 2023년 세계기아지수 점수는 35.1에서 35.7 사이로 각각 '위험' 수준을 기록했다. 니제르의 기아지수 점수는 매우 높은 아동 발육부진율, 높은 아동 저체중률, 그리고 올해 보고서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아동 사망률(11.5%)을 기반으로 산출되었다. 니제르의 영양결핍 인구 비율은 16.1%로 중간값을 기록했다. 니제르의 아동은 최근 몇 년간 내전으로 이재 이주, 인근 국가로부터의 난민 대거 유입, 기후 위기에 따른 식량가격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다(ActuNiger 2023; UNICEF and MHA 2022). 레소토의 기아지수는 '심각' 수준이며 매우 높은 영양결핍률에 기인한다. 레소토의 2020-2022년 영양결핍률은 46.0%로, 이는 2014-2016년 31.9% 대비 상승, 2007-2009년의 12.3% 대비 급상승한 수치이다. 이는 불규칙한 강우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뭄 등 예측 불가능한 기상 조건 탓에 지난 수십 년간 레소토의 농업 생산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WFP 2023b). 콩고민주공화국의 기아지수 산출을 위한 세부 지표값은 높거나 매우 높은 수준이며 아동 저체중률만이 중간 값을 기록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최근 수년간 내전으로 대량의 국내 실항민이 발생했고 농업활동이 감소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내전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기후현상, 농작물 해충 피해, 가축 질병 감염, 높은 식량 가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FSIN and GNAFC 2023). 620만 명 이상의 국내 실항민이 발생했고 인근 국가로부터 5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유입됐다(UNHCR 2023b).

“지역사회에서 기아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대부분 분쟁입니다. 저는 농민이지만, 분쟁이 발발하면 제 텃밭과 농작물을 뒤로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떠나 정착한 곳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주민(Newcomers)이고 그곳에는 일거널 받도 어떠한 자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고향에 모든 것을 두고 떠나왔기 때문이죠.”

- 루스 움바(Ruth Yumba, 20세), 콩고민주공화국 (안전상의 이유로 가명 사용)

‘위험’ 수준으로 잠정 분류된 소말리아는 2020년말 부터 장기적인 가뭄을 견뎌야 했으며 이는 식량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세계기아지수 점수 산출을 위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지만, 소말리아의 2020-2022년 영양결핍률은 48.7%(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동일)로 올해 보고서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2021년 아동 사망률도 11.2%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6년 연속으로 우기에 평균 미만의 강우량을 기록한 소말리아는 농작물 생산이나 가축 관리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었다(IRC 2023; UNHCR 2023a). 2022년 소말리아에서 약 4만 3,000명의 초과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절반은 5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가뭄과 더불어 국제적인 물가상승, 지속적인 치안 불안정,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가 위기를 초래한 것이다(FSIN and GNAFC 2023). 가뭄이 지속되어도 대규모의 인도적 대응 덕분에 지금까지는 기근을 피할 수 있었지만, 더 지속적이고 확장된 자원이 필요하다(UN OCHA 2023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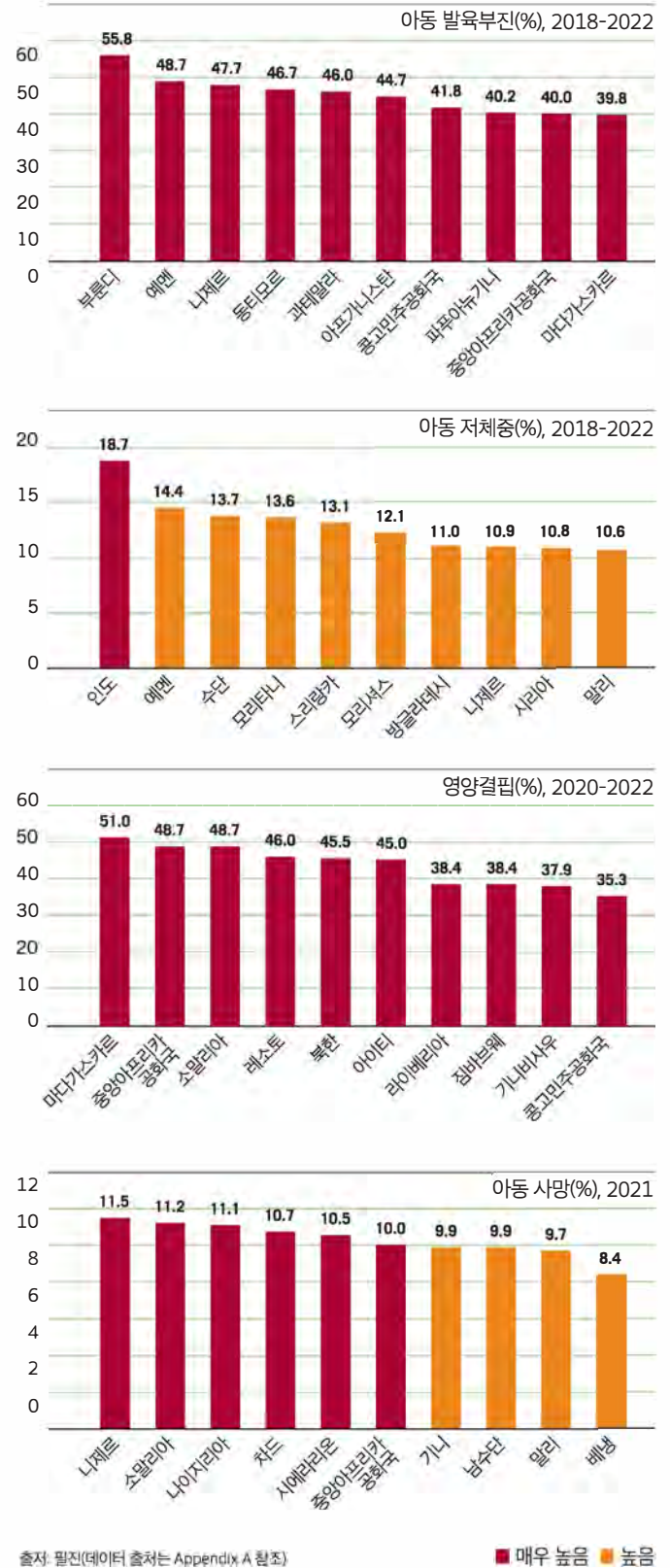
남수단의 세계기아지수는 ‘위험’ 수준으로 잠정 분류되었다: 아동 사망률은 거의 10%에 달했으며, 2020-2022년 인구 5명 중 1명꼴로 영양 결핍을 겪었다.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Global Report on Food Crises)는 2022년 2분기에 인구의 거의 3분의 2가 위기 수준의, 혹은 그보다 심각한 식량 불안정을 겪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속적인 분쟁, 치솟은 식량과 연료 가격, 심각한 홍수 피해, 낮은 외환보유고 등 여러 요인이 상호작용해 남수단의 기아 수준을 악화시키고 있다(FSIN and GNAFC 2023).

부룬디는 세계기아지수가 ‘심각’ 수준으로 잠정 분류되었으며 아동 발육부진율이 55.8%로 올해 보고서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구의 약 3분의 2가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지 못한다(Bella 2022). 부룬디는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 중의 하나로 빈곤율이 70%에 달한다. 높은 빈곤율과 급격한 인구 성장, 기후재난, 깨끗한 식수와 보건 및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한 등으로 부룬디는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다(WFP 2023a).

“우리 학교는 기후위기로 지속적인 식량 불안정에 처한 지역에 있어요. 아이들의 교육, 특히 출석률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 클레망스 쿼제라(Clémente Kwizera, 43세), 부룬디

그림 1.5 세계기아지수의 세부지표 결과가 높은 국가들



2015년 이후, 18개국의 기아 수준이 악화돼 2023년 이들 국가의 세계기아지수 점수가 '보통', '심각' 또는 '위험' 수준을 기록했다(Appendix C). 18개국 중 8개국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5개국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3개국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와 서아시아-북아프리카에 각각 1개국이 있다. 2023년 세계기아지수가 '보통', '심각' 또는 '위험' 수준인 추가 14개국은 2015년 대비 기아지수 점수가 5% 미만 감소해 동 기간 동안 미미한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레소토, 베네수엘라, 시리아 3개국은 2023년 기아지수가 2000년 대비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년간 기아문제가 악화되었다는 점이 우려된다.

세계기아지수 점수 계산에 사용되는 개별 지표값을 살펴보면 일부 국가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5). 예를 들어, 부룬디의 아동 발육부진율은 절반 이상인 55.8%로 만성적 영양결핍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도의 아동 저체중률은 18.7%로 세계에서 가장 높아 급성 영양실조 상태임을 나타낸다. 마다가스카르의 영양결핍 인구 비율은 인구 절반 이상인 51.0%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6개국(나이지리아, 니제르, 소말리아, 시에라리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은 10-12%이다.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극심한 기아와 영양실조를 겪고 있지만 진전과 희망을 보이는 국가도 있다. 2000년 세계기아지수 점수가 '극히 위험' 수준을 기록했던 7개국(니제르, 소말리아,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티오피아, 잠비아, 차드)은 2000년 이후 모두 진전을 이루었다. 2023년 세계기아지수 점수를 보면, 이들 7개국 중 5개 국가가 기아감소를 달성해 기아지수를 '심각' 수준으로 개선했다. 니제르의 2023년 세계기아지수 점수는 35.1로 이는 '심각' 수준에 매우 근접한 수치이다. 그러나 소말리아의 기아 수준은 '위험'으로 잠정 분류되었다. 또한 7개국(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지부티, 차드)의 2023년 세계기아지수 점수는 2015년 대비 5점 이상 감소했다. 전 세계가 위기에 직면해 있고 지난 몇 년간 세계의 기아 퇴치 노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아 감소는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가 청년의 삶을 위태롭게 한다

2장에서 다뤄질 “2030년을 넘어서: 청년, 식량시스템, 그리고 식량 주권의 미래”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청년은 “식량과 영양안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기후변화와 환경 악화에 매우 취약하며, 불평등하고 지속가능하지 못한 식량시스템 속에서 성인기를 맞이하고 있다.”** 청년은 충분한 식량과 영양섭취가 특히 중요하며,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 청년에게 이것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봤을 때,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는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은 건강하면서 저렴한 비용을 의미하고, 근로는 더 나은 삶을 의미하며 토지는 번영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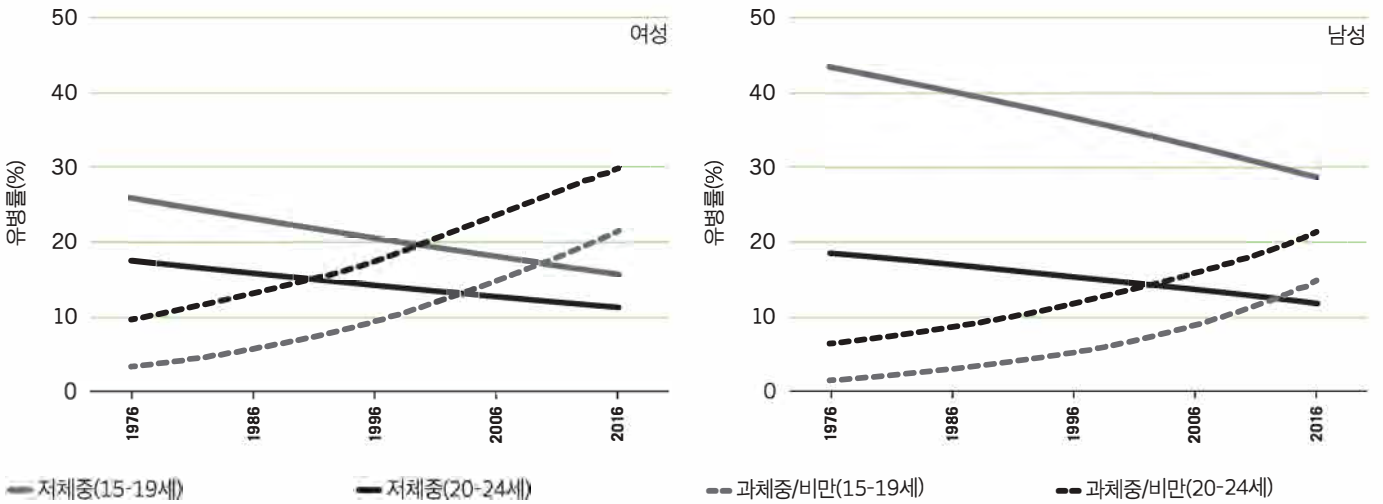
- 에르베지 클레멘타인(Hervé Clémentine, 29세), 마다가스카르

청년기(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는 적절한 식사와 영양섭취가 중요한 성장 시기이다. 태아기와 유아기, 아동기에 양질의 영양섭취가 중요하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잘 알려져 있고 최근 몇 년간 이에 대해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어왔다. 그러나, 국제단체들과 각국 정부가 삶의 중요한 단계인 청소년기에 점점 더 주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의 영양상태의 중요성은 역사적으로 덜 강조되어왔다(SPRING and Save the Children 2018). 청소년기에 적절한 영양섭취를 못 하거나 부실한 식습관을 형성하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 성 성숙이 지연되고 키가 덜 자라거나 골다공증, 고지혈증에 걸리거나 비만이 될 수 있다(Norris et al. 2022; Wahl 1999).

아동기와 더불어 청소년기는 가장 급격하게 신체적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청소년은 풍부한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 등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경을 시작한 여자아이는 추가적인 철분 섭취가 필요하다. 5-19세의 아이들은 이전에 부족했던 영양소를 이 시기에 충분히 섭취하고, 덜 자란 키를 더 자라게 할 수 있지만, 이 시기에 충분한 영양섭취와 식사를 못할 경우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Kupka et al. 2020).

식량 불안정과 기아는 삶의 중요한 시기인 청년기에 위협적인 장애물이다. 식량 불안정과 기아의 주요 지표는 연령대별로 세분화되지 않기 때문에 청년기 관련 데이터는 빈약하다. 그러나 기존 데이터만으로도 청년이 심각한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6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 청년(청소년)의 저체중, 과체중 및 비만 비율(1976-2016)



출처: Based on IFAD (2019, 그림6.5).

95개국의 학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1-14세 학생의 25.5%가 지난 30일간 식량 불안정을 겪었으며 15-18세 학생의 30.0%가 이를 경험했다. 학생들이 겪은 식량 불안정은 좋지 않은 영양상태와 정신 건강 및 행동 그리고 학교 폭력 경험과 관련이 있었다(Fram et al. 2022). 이 연령대 중 학생이 아닌 청소년은 더 큰 위협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한 연구에서 측정된 식품소비점수(Food Consumption Score)에 따르면 케냐, 나이지리아와 우간다의 젊은 농민의 절반가량이 식량 불안정에 처해 있으며, 이 연령대의 식이 다양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Adeyanju et al. 2023).

식량 접근성과 가용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도 청년들의 식량 선택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초가공식품 광고, 이상적인 체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압박, 또래 압력 등의 외부적인 부담 요인이 청소년의 식품 소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Fleming et al. 2020).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시기는 평생의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청소년에게 식생활과 영양에 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Kupka et al. 2020).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구성된 식생활이 유행인 현대사회는 청년을 영양실조와 미량영양소가 결핍된 과체중과 비만의 이중 부담의 위험에 빠뜨린다. 개인적 차원에서 과체중인 청소년들은 낮은 영양분의 음식을 과소비하고 낮은 신체활동을 하기 때문에 영양결핍 상태가 된다(IFAD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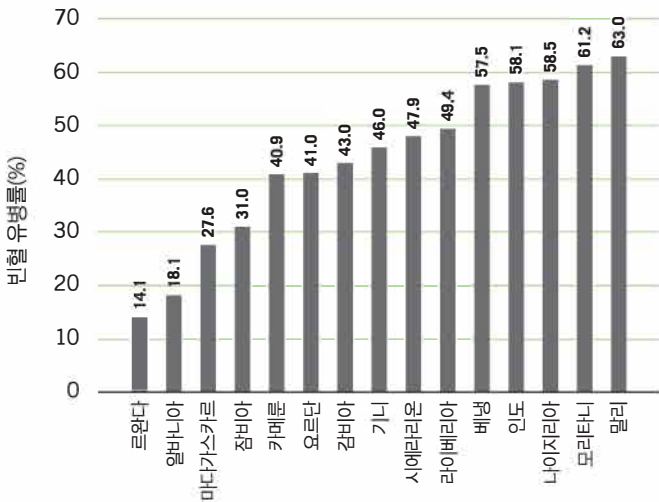
“삶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정부의 이동제한 조치 때문에 우리가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이 없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학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제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린 컬리지(Green College)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웠고, 지금은 유기농 채소를 재배해 팔고 있습니다. 이제 소득이 생겼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아요.”

- 카바룬기 라티샤(Kabarungi Latisha, 20세), 우간다

“저는 제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이 강화된다면 남수단이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다음 세대는 더욱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겠죠.”

- 조이스 아발로(Joyce Abalo, 34세), 남수단

그림 1.7 선정된 국가 중 15~24세 여성의 빈혈 유병률



출처: ICF (2023).

주: 선정된 국가들은 ICF에 포함된 2018년 이후 데이터를 수집한 국가들이다(2023).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의 데이터를 표시했다.

WHO 2020). 정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양결핍과 영양과잉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저체중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과체중과 비만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그림 1.6; IFAD 2019).

젊은 여성의 영양소 필요량을 결정할 때는 임신 가능성, 그리고 여성의 영양상태가 자신 및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의 3분의 1에 달하는 여성이 19세 이하에 첫 아이를 출산한다(UNFPA 2022). 엄마가 저체중이고 키가 작은 경우 아이는 발육부진이나 저체중이 될 수 있으며, 모성 영양결핍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아동 영양결핍도 발생한다(UNICEF 2023b). 임신 중인 여성이 충분한 철분을 섭취하지 못하면 종종 빈혈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산모의 건강은 물론 유아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미국 혈액 학회(American Society of Hematology) 2023). 여러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빈혈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그림 1.7),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2030년까지 청소년과 성인 여성의 빈혈 유병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UNICEF 2023b).

결론

전 세계가 최근 몇 년간 직면한 위기는 기아 종식을 위해 이룬 성과를 저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세계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 위기에 처할 것이다.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는 가뭄, 홍수, 극심한 폭풍이나 폭염 등 직접적인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팬데믹, 내전, 이재 이주 등의 간접적인 위기를 초래해 대응하기 힘든 기아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오늘날 불평등이 이미 만연한 세계에서, 기아, 빈곤, 내전, 부실한 거버넌스로 이미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국가가 이러한 위기의 부담을 가장 크게 떠안을 것이다.

전 세계는 끊임없이 정상회담을 열고 의욕적인 선언문을 통해 기아와 영양실조와 그 내재적 요인들을 퇴치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러한 공약들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한층 악화된 식량 및 영양 불안정에 시달릴 것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세대 간 약속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식량시스템의 변혁과 거버넌스 구조, 에너지 및 사회기반 시스템, 사회보장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이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진 활동들이 기아 종식(Zero Hunger)을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매일 수백만 명 식량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을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식량시스템에 포용적인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는 굳건한 정치적 의지와 약속이 필요하다.

“우리 부모님과 조상님은 모두 농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세농민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들까요?”

- 체탄 쿠마르(Chethan Kumar B. G., 31세), 인도

그림 1.8 2023 세계기아지수 지도



- 극히 위험 ≥ 50.0
- 위험 35.0-49.9
- 심각 20.0-34.9
- 보통 10.0-19.9
- 낮음 ≤ 9.9
- 미산출 또는 미지정(Appendix A 참조)
- * 잠정적 심각도 지정(표 A.3참조)



출처: 필진

주: 2023 세계기아지수 중 영양결핍률 데이터는 2020-2022년 자료이다.

아동 발육부진과 저체중은 2018-2022년 데이터 중 최신 자료를 사용했다. 아동 사망률은 2021년 자료이다.

세계기아지수는 지수에 해당하는 포함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데이터의 사용이 어려운 국가에 대해 산출하지 않는다.

컨설팅월드와이드와 세계기아원조는 보고서에 나타난 국경, 명칭, 지도의 위치를 공식적으로 추천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

세부내용은 Appendix A 참조

권고된 인용: von Grebmer, K., J. Bernstein, W. Geza, M. Ndllovu, M. Wiemers, L. Reiner, M. Bachmeier, A. Hanano, R. Ní Chéilleachair, T. Sheehan, C. Foley, S. Gitter, G. Larocque, and H. Fritschel. "그림 1.8: 심각도에 따른 2023년 세계기아지수."

2023년 세계기아지수 지도: 식량시스템 형성에 있어서 청년의 힘.

Bonn: Welthungerhilfe (WHL); Dublin: Concern Worldwide.



니제르 타후아 지역의 콜로마 마을에서 젊은 여성들이 물을 퍼 올리고 있다. 기후위기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식량안보에서 중요한 깨끗한 물에 대한 안전한 접근성을 저해한다.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청년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청년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청년이 의미 있게 개입해야 한다.

2030년을 넘어서: 청년, 식량시스템, 그리고 식량 주권의 미래

웬디 게자와 멘디 느드로부

과줄루나탈대학교 농식품시스템변혁센터(Centre for Transformative Agricultural and Food Systems, School of Agricultural,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s, University of KwaZulu-Natal, South Africa)

주요 메시지

- 청년은 식량과 영양안보를 보장하지 못하며, 불평등하고 지속 불가능한 식량시스템 속에서 성인으로 전환되고 있고, 기후위기와 환경 파괴에 매우 취약하다. 청년은 현행 식량시스템이 야기한 위기로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결합 있는 식량시스템 자체를 이어받아 그것이 초래할 미래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 식량 불안정과 영양결핍률은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지속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많은 청년들은 농업이 매력적이지 않고 수익성이 없는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 현재의 식량시스템은 식량 주권, 즉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어 건강하고 문화적으로도 적합한 식량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의 고유한 식량과 농업 생산 체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권리가 부재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과적으로 토착농업과 지역농업 그리고 (농업) 지식 체계가 위협에 처해 있다.
-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의사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다. 정책입안자들이 청년의 목소리와 견해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공식적인 의사결정 포럼에 청년이 참여하는 비율은 미미하다. 정책적 논의에 청년층이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 식량 주권을 추구하는 것은 청년들이 결합 있는 식량시스템을 더 지속가능하고 공정하며 전 세계 사람들,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변혁시키는 데 적극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해준다. 청년은 에너지와 혁신성을 통해 그들이 처한 맥락에 맞는 식량 주권을 되찾아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생태학적 억압과 기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각국의 식량시스템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다. 식량시스템이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으며, 공정하게 바뀌면 청년들에게 공평하고, 흥미로우며 지속 가능한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정치 지도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 교육 및 역량 개발 등 청년의 복지와 행복을 도모할 수 있는 영역에 투자해야 하며, 청년을 정책입안 과정에 적극 개입하도록 해 포용성,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증진해야 한다. 청년은 식량시스템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하며 자신의 견해를 정책에 통합시켜 모두에게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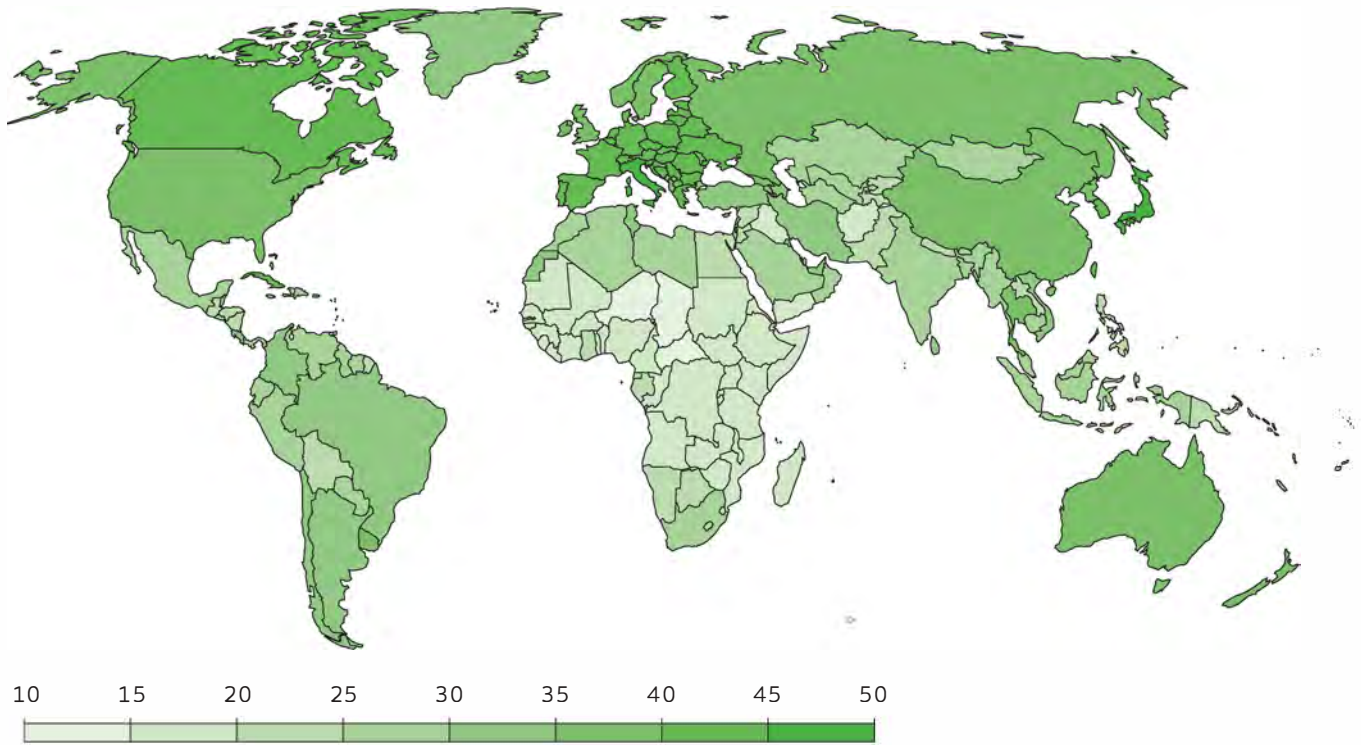
세계 각국의 식량시스템은 시대에 뒤떨어졌고, 지속 불가능하고 취약하며 종종 포용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Nguyen 2018; Mabhaudhi et al. 2019; Sampson et al. 2021; Bjornlund et al. 2022). 세계 각국의 식량시스템은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의 소외된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구위험한계선(Planetary Boundaries) 내에서 적절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을 제공하지 못한다. 현재 논의의 초점은 세계적인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시점까지 7년밖에 남지 않았더라도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전 세계 청년에게 이러한 관점은 너무 근시안적인 것이다. 청년은 한 세기 동안 점점 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식량시스템을 경험했기 때문에 훨씬 먼 미래를 내다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현재 세계 청년 인구는 약 12억 명으로 역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했으며(박스 2.1 참조), 대다수 청년이 남아시아, 동아시아, 아프리카의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그림 2.1; Glover and Sumberg 2020). 청년은 코로나 19 팬데믹의 여파로 건강한 삶과 복지, 생계를 가장 위협받은 계층이다(HLPE 2021). 동시에 청년은 식량과 영양안보를 보장받지 못하고 불평등이 내재된 지속 불가능한 식량시스템 속에서 성인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에 매우 취약하다. 우리는 20대 청년으로서, 우리 세대가 현재의 식량시스템이 야기한 위기로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결합 있는 식량시스템 자체를 이어받아 그것이 초래할 미래의 도전과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임을 잘 인지하고 있다. 이 도전과제들은 식량권뿐만 아니라 건강, 교육, 양질의 일자리와 생계 등을 보장받을 권리 등 우리의 인권을 실현시키는데 위협이 될 것이다.

청년은 길고도 건강한 미래를 꿈꿀 자격이 있다. 현행 식량시스템을 이어받을 청년으로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식량시스템을 변혁시키는 과정에 우리의 목소리가 더 강력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식량 주권에 주력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문화적, 사회경제적, 발전적이며 환경적 가치에 따라 식량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될 것이다.

주: 이 장에 기술된 내용은 필진의 견해이며, 세계기아원조나 컨설팅드와이드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그림 2.1 청년 거주 지역: 2021년 국가별 중위 연령, 2021



출처: Ritchie and Roser (2022), UN DESA, Population Division 데이터(2022).

박스 2.1 청년: 연령 혹은 삶의 단계에 따른 분류

“청년”을 정의하는 방식 중 하나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UN은 청년을 15세에서 24세 사이로 정의하며, 아프리카 연합은 15세에서 35세 사이로 정의한다. 좀 더 광범위하게, ‘청년기’를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하는 시기로서 청년의 권력, 권한, 사회적 가치가 진화하는 시기라고 보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다 (Christiansen et al. 2006). 청년은 이 시기에 정체성을 확립하고, 독립성을 획득하며 책임을 짊어지기 시작하고 지식과 기술을 개발한다. 청년은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맥락의 경계 내에서 자신의 삶을 구현하며 성인으로 발전해 나간다(Molgat 2007; Heinz 2009). 청년기를 이러한 삶의 단계로 규정할 수 있으나, 다른 무엇보다도 성별, 교육 수준, 보유 기술, 부, 소득, 거주지역(도시, 도심 근교, 지방)의 영향으로 청년은 각기 다른 정체성과 수요를 갖는다.

현행 식량시스템은 청년의 삶을 위태롭게 한다

세계의 청년은 여러 측면에서 결함이 있는 현재의 식량시스템을 이어받아야 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현행 식량시스템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량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 2022년 세계기아 인구는 약 7억 3,500만 명에 달했으며 31억 명 이상은 영양이 풍부한 식단을 위한 경제적 지불 능력이 없었다(FAO et al. 2023a). 세계기아지수가 구체적으로 청년의 기아 수치를 보여주진 않지만,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 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식량 불안정과 영양결핍률이 지속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Glover and Sumberg 2020; et al. 2023a).

청년의 기아와 영양결핍률에 있어서 성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극심한 기아를 겪는 사람들의 60%가 여성(성인, 청소년, 아동 포함)이다(WFP 2023c). 다수의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서는 특히 저소득층의 여성이 식량 생산과 음식 준비를 담당하고 물과 장작을 구해오는 역할을 맡는다.

청년은 길고 건강한 미래를 꿈꿀 자격이 있다.

현행 식량시스템을 이어받을 청년으로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식량시스템을 변혁시켜야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더 강력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식량 주권에 주력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문화적, 사회경제적, 개발적 그리고 환경적 가치에 따라 식량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다.

심각한 식량 부족 시기에는 보통 성인 여성이나 여자아이들은 가장 마지막에 최소 분량의 식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식량 불안정과 영양결핍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Botreau and Cohen 2020).

많은 국가에서 젊은 세대중 특히 여성은 점점 더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ILO 2020). 2020년 세계 청년 실업률은 18.4%로 추정되며, 이는 성인 실업률의 3배가 넘는 수치이다(그림 2.2). 세계 청년 5명 중 1명 이상은 학업이나 근로활동 및 훈련을 받지 못하는 상태이다(ILO 2022).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특히 실업과 위기에 취약한 청년층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HLPE 2021). 또한, 청년 근로자는 성인 근로자에 비해 극심한 빈곤(매일 1.90 달러 미만으로 생활)에 처할 확률이 2배 높고 비공식 취업을 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ILO 2022). 젊은 여성은 무급 돌봄노동의 부담으로 소득창출 활동을 할 시간, 에너지, 기회가 제한돼 직업을 갖기 어렵다. 무급 돌봄노동은 젠더 불평등을 영속시키고 빈곤과 기아의 근본 원인이 된다(Action Against Hunger 2021).

저·중소득 국가의 청년은 다른 분야보다 농식품 시스템 연계 일자리에 종사하기가 쉬운데, 이는 다른 분야에 비해 자본이나 보유 기술 등 필요 요건의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다(Christiaensen et al. 2021). 더불어 식량 수요가 증가하고 식품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농식품 시스템 관련 일자리와 기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Chipfupa and Tagwi 2021). 그러나 대다수 청년들은 농업은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할 직업이며 생산성이 낮은 직업”으로 인식한다(Filmer and Fox 2014). 농업 활동에 대한 지원과 혁신,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고 농업으로 큰 수익을 창출하거나 자아실현이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청년은 농업 활동에 별로 관심이 없다(Chipfupa and Tagwi 2021; Girdziute et al. 2022). 식량시스템 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청년들은 최소한의 고용 안정성만 보장받고 저소득과 젠더 불평등을 겪는 비공식 근로자이다(Dolislager et al. 2020; Fox and Gandhi 2021).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에서는 청년이 농업에 종사하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많은 청년이 농업 활동에서 손을 떼고 있다(Chipfupa and Tagwi 2021).

박스 2.2 남아프리카, 과줄루나탈의 청년의 시각

자모 주마(Zamo Zuma, 23세)는 남아프리카 과줄루나탈(Kwa Zulu-Natal) 스와이마네(Swayimane)에 위치한 ‘은체보옌코시(Nceboenkosi) 청년 협동조합’의 회원이다. 협동조합 청년들은 공유지에 농사를 짓고 고등학교에서 텃밭을 가꾼다. 2023년 4월 진행된 인터뷰에서 자모는 그가 직면한 난제들을 설명했다.

“저는 학교를 졸업했지만 직업이 없습니다. 직업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죠. 아버지는 비정규직 근로자이지만 우리 가족은 식량 구매를 전적으로 아버지의 소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재정 사정으로 돈이 부족해 필요한 식량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5일 정도는 하루에 세 끼 대신 두 끼를 먹습니다. 식사량을 줄이고 텃밭에서 잎채소, 옥수수나 콩을 따다 먹기도 해요. 식량을 구하기 어렵으면, 어머니께서 이웃집에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콩 종자를 보관해 두었다가 다음 계절에 심기도 합니다.”

자모가 회원으로 있는 ‘은체보옌코시 협동조합’은 과줄루나탈에 소재한 URP(Umngeni Resilience Project)의 지원을 받고 있다. URP는 지역 영세농의 회복 탄력성을 증진시키고 기후변화 여파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URP 사업의 일환으로, 농업 투입물과 교육을 제공하고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등 청년 농업 협동조합을 지원했다. 청년들의 요청에 따라 URP는 기후위기 상황 속 계절별로 적합한 농작물 재배와 선별 방법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와 그 청년이 기후변화에 훨씬 더 취약하며 그 영향이 심해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식량시스템에 내재한 문제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기후)적응력이 거의 없는 취약한 저·중소득 국가는 한층 심해진 식량 및 영양안보 문제와 힘겹게 싸워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하다는 청년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행은 정체 상태에 있다.

식량 주권의 손실은 식량시스템을 악화시킨다

청년으로서, 우리는 현행 식량시스템이 가진 큰 약점 중의 하나를 식량 주권의 부재라고 인식한다. 식량 주권을 추구하는 것은 청년들이 식량시스템을 더 지속가능하고 공정하며 전 세계 사람들,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변혁시키는 데 적극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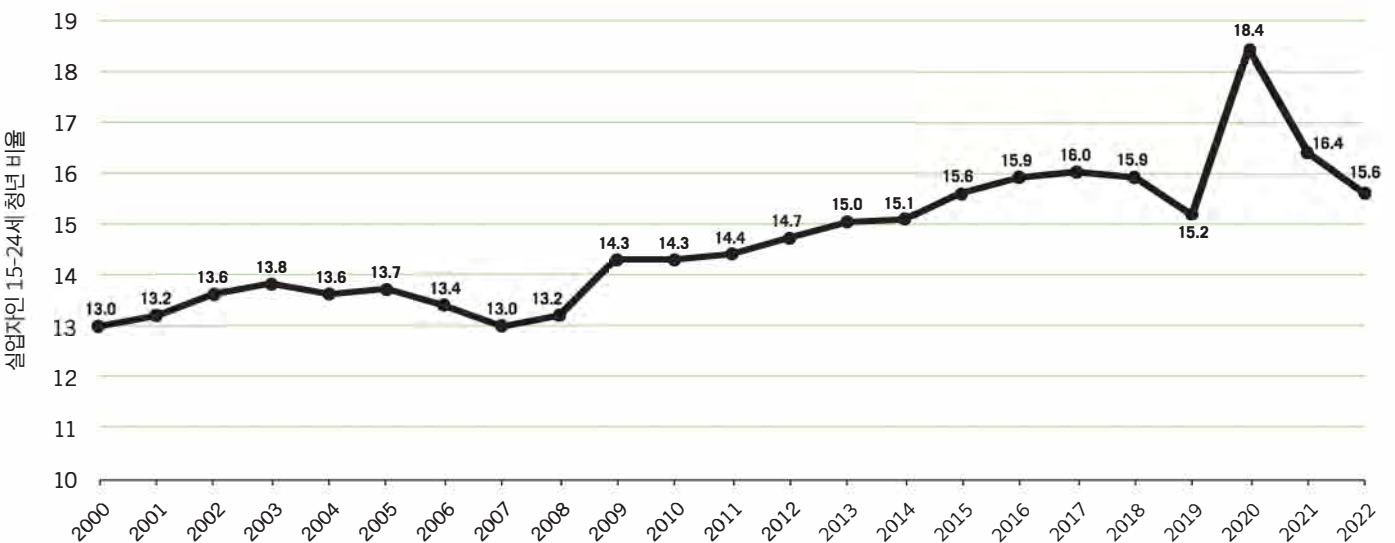
식량 주권의 개념과 관련해 4개의 중요한 요소를 살펴봐야 한다. 4가지 요소는 사람과 권리, 생산된 식량의 품질, 식량시스템의 문화적인 측면, 그리고 환경 웰빙(Environmental Well-being)이다. 2007년 말리의 니엘레니 마을(Nyéléni Village)에서 열린 국제 포럼에서 식량 주권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량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이자, 고유한 식량 및 농업 생산 체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권리”라고 선언했다(Declaration of Nyéleni 2007).¹

식민주의, 열악한 거버넌스, 자본 집약적인 식량시스템, 단일작물 집중 재배 확산, 녹색 혁명(Green Revolution)이 초래한 일부 부정적인 결과 등으로 인해 특히 저·중소득 국가에서 식량 주권이 손실됐다(Weiler et al. 2015; Shilomboleni 2017). 그 결과 토착 농업, 지역 영농 및 농업 지식 체계가 큰 위협에 처하고 말았다. 토착 농업, 지역 영농 및 농업 지식 체계는 각종 연구와 정책에서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골 지역에 남겨진 노년층과 청년이 식량시스템에 참여하는 비율이 감소하면서 더욱 등한시되고 있다(Gunaratne et al. 2021).

여러 지역의 농민들은 종자 시스템에서 배제되며 농작물 경작 통제권이 제한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토착 종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Mabhaudhi et al. 2018; Sidibé et al. 2020; Mudau et al. 2022).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에서는 종자와 관련된 수많은 법안과 규정해 오고 있다.

¹ 식량 주권의 개념은 국제농민운동체인 La Vía Campesina가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의에서 처음 도입했다. 국제농민운동체가 선언한 식량 주권의 7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식량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농업개혁이 필요하다. 천연자원을 보호해야 한다. 자국의 식량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식량 무역을 재조정해야 한다. 다국적기업의 권력 집중을 축소해야 한다. 사회적 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식량시스템을 관리해야 한다(Sampson Et Al. 2021).

그림 2.2 전 세계 청년 실업률, 2000-2022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2023c).

사례 연구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말리

말리는 무력 분쟁과 기후변화 등을 포함한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UNICEF 2023d)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청년은 양질의 일자리나 농업 활동을 모색할 기회가 턱없이 부족해 고통받고 있다. 젊은 엄마인 파투마타 자라 니킹감(Fatoumata Zara Nikingam)은 영양가 있고 저렴한 식량을 구매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식품가격은 오른 데다가 우기인 7~8월에는 숯 판매수입이 하락하면서 우리 부부와 아이들의 식량을 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카림 알코예(Karim Yalcouye)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카림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14세의 나이에 학교를 그만뒀다.

“혼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식료품비, 의류비와 자녀 학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내와 딸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투마타와 카림은 미래 유망 분야에서 청년을 위한 녹색 직업을 활성화시키는 Skill Up!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² 이 프로젝트는 말리 세구(Ségou) 지역의 18-35세의 취약한 청년의 고용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이들에게 지속가능한 농업, 디지털 혁신, 폐기물 재활용, 재생에너지 관련 직업교육과 창업훈련을 제공한다.

2 이 사례연구는 세계기아원조(WHH)가 제공했다. 바우어(Ms. Bauer)가 바우어자선단체(Bauer Charity gGmbH)를 통해 프로젝트를 자금을 지원했고 세계기아원조와 그 파트너인 AgriSup, DoniLab, 그리고 Viamo가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말리 세구(Ségou)지역에서 카림 알코예(Karim Yalcouye, 24세)와 그의 가족이 묘목 속에 앉아있다.



파투마타 니킹감(Fatoumata Zara Nikingam, 29세)이 말리 세구지역에서 친환경 숯 생산장비 옆에서 있다.

*“Skill Up!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 사업 효율을 향상시키고 고객기반을 확장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과 지식을 배웠어요. Skill Up!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가족을 더 잘 부양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라고 카림은 말했다.

카림은 청년이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며 *“적절한 지원과 기회가 제공된다면, 저 같은 청년도 영구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 함께 협력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파투마타는 사업가적인 에너지를 발휘해 의류소매업에 종사하며 동시에 남편을 도와 가업인 시어버터 생산도 함께하고 있다. 그는 야생 관목, 망고 껍질과 씨앗, 시어버터 껍질 등의 식물 잔해로 친환경 숯을 제조하는 마르타 브리켓(Marta Briquette) 회사의 대표이다.

*“Skill Up! 프로젝트에 참여해 사업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 제 기술과 제품의 품질이 향상되었어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사업을 확장해 고객을 늘리고 우리나라(말리)에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습니다. 지역사회 롤모델이 되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방식을 적용하도록 사람들을 자극하는 것이 제 꿈이에요.”*라고 덧붙었다.

사례 연구 방글라데시의 농업과 영양지식 강화



방글라데시 바거하트 지역에 있는 집에서 두 살 아들 라키브(Rakib)와 함께 있는 호세나레 악타르(Hosenare Aktar, 28세)의 사진

호스나레 악타르(Hosenare Aktar)는 방글라데시의 바그레하트 지역(Bagerhat District) ‘영양 개선을 위한 집단적 책임, 행동 및 책무성 (CRAAIN)’ 프로그램에 참여했다.³ 이 프로그램은 정부, 시민단체, 민간부문과 지역사회단체의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 50만 명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자 한다.

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호스나레는 영양, 기후스마트농업 기술, 물 사용,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았고 염소 한 마리와 오리 네 마리를 지원받았다. 그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작은 농장을 꾸리게 됐고 태풍이나 홍수 같은 기후재난이 닥쳤을 때 가족들이 그 여파를 잘 극복해 나가도록 도울 수 있었다.

“CRAAIN 프로젝트가 실행되기 전에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도 듣고 여러 가지 상담을 받은 후 저는 작은 농장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호스나레는 생계활동에 참여하여 잉여 소득을 낼 수 있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가족은 제가 직접 기른 채소를 먹었고 이웃에게도 채소를 빌려줄 수 있었어요. 또 채소를 팔아 1,000타카(8.30 유로)를 벌었는데 이 돈은 저축해 아이의 교육비로 사용할 것입니다. 제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작은 농장을 더 크게 키우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처음에 받은 염소 한 마리가 지금은 세 마리로 늘었어요. 염소를 열 마리 이상 키워 수익을 늘리고 농장을 유지하는 것이 꿈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호스나레는 자신이 배운 지식을 지역사회 일원에게 전파하고 있다. “이웃 모두가 저를 통해 배우는 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작물의 재배 방법과 여러 가지 개선점에 대해 조언을 해주고 있지요.”

³ 이 사례 연구는 컨설팅드와이드가 제공했다. CRAAIN은 컨설팅드와이드, 워터에이드(WATERAID) 그리고 RUPANTAR와 JAGRATA JUBA SHANGHA(JJS)라는 2개의 비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실행했다. AGRI'SUP, DONILAB, 그리고 VIAMO가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케냐의 2012년 종자와 식물품종 보호법(Seeds and Plant Varieties Act of 2012) 326항에 따르면, 모든 “미등록된 작물 품종(대개 전통 작물 품종)”의 종자를 교환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며, 이는 농민의 식량 생산, 농업, 식량시스템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말한다(GRAIN and La Via Campesina 2015; Dena 2022). 사람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식량 및 영양 안보, 식량 주권을 빼앗는 이같이 독점적이고 제한적인 법률 체계는 모든 사람들, 특히 향후 몇 년간 이 법률 체계가 초래하는 악영향으로 고통받아야 하는 소외계층과 청년의 인권을 위협한다.

식량 주권의 부재는 식량과 영양 불안정을 확산시키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위기를 초래했다(Gunaratne et al. 2021; Sampson et al. 2021; Bjornlund et al. 2022). 식량 안보를 위해 주요 농작물이나 다수확 작물 재배를 활성화시키자 1990년과 2017년 사이 세계기아인구가 감소했지만, 2017년 이후 영양결핍률과 영양결핍 인구수는 그대로이거나 증가했다(FAO et al. 2023a). 이런 역전 현상은 식량시스템 변혁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전 세계의 청년은 자신만의 조직과 이니셔티브를 형성하고, 글로벌 위기에 대한 인식을 재편하며 사회 혁신을 이끌고 해법을 모색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의 이후 식량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은 미흡했으나, 사회 정의와 식량권 실현 및 보호 필요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La Via Campesina 2021; Sampson et al. 2021; Bjornlund et al. 2022; GFFA 2023). 식량 주권 확대는 토종작물 및 방치된 작물⁴ 경작과 농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육을 병행하는 혼합 농업 체계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글로벌 식량시스템은 다양화되고 현지화해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식량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Mabhaudhi et al. 2018, 2019; Akinola et al. 2020; Wijerathna-Yapa and Pathirana 2022). 이를 위해서는 식량시스템의 취약성을 완화하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고 더욱 포용적이며 통합된 종자 시스템이 필요하다(Mabhaudhi et al. 2018; Wijerathna-Yapa and Pathirana 2022).

지역적으로 탄력적이고 다양하고 혁신적이며, 고투입 소농 방식이 아닌 농업을 지원 및 장려하고 확산시킨다면, 현재의 식량위기와 영양위기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법을 제시해 취약계층이 빈곤과 기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Mabhaudhi et al. 2018; Mudau et al. 2022; Wijerathna-Yapa and Pathirana 2022). 또한 현행 식량과 종자 시스템에서 소외된 계층의 인권을 옹호할 수 있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식량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구 위험 한계선 내의 모든 사람들의 식량 주권을 확보하려면 혁신이 필요하다. 불공평한 시스템을 이어받아야 할 청년은 이러한 혁신을 주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정책적 프로세스에 청년의 발언권은 작다

식량 주권을 확보하면 국가, 지역 및 지역사회 기관의 이해관계자와 원로 등 지식보유자 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진다. 포용적인 상호작용에 힘입어, 청년은 고유한 에너지와 혁신성을 통해 지역 맥락에 기반한 식량 주권 회복 지원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생태위기와 기후 스트레스에 처한 지역 식량시스템의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다.

식량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식량 주권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에 청년이 의미 있게 참여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청년이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비율은 미미하다. 대부분 지역

에서 국회의원 평균 나이는 50세 이상이다(Stockemer and Sundström 2022). 전 세계 30세 미만 국회의원 비율은 낮으며(표 2.1) 특히 아시아, 태평양, 중동·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서유럽의 30세 미만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더 낮다. 청년은 입법 절차에 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므로, 청년의 구체적인 우선순위나 수요를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Stockemer and Sundström 2022).

정책입안자들은 글로벌 위기에 직면하자 워크숍, 컨퍼런스 및 실무그룹 참여를 장려하며 청년의 목소리와 시각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아울러 전 세계 청년은 자신만의 조직과 이니셔티브를 형성해 글로벌 위기에 대한 인식을 재편하며 사회적인 혁신을 이끌고 해법을 찾으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Act4Food Act4Change(식량시스템 변혁을 위한 청년 서약), Asian Indigenous Youth Platform(아시아 원주민 청소년 플랫폼), Global Youth Innovation Network(GYIN, 글로벌 청소년 혁신 네트워크), Innovative Food Systems Solutions(IFSS, 혁신 식품 시스템 솔루션), Nutrition Connect(영양 커넥트), Slow Food Youth Network(슬로우푸드 청소년 네트워크), Youth Working Group of the International Planning Committee for Food Sovereignty(국제식량주권계획위원회 청년실무단), Young Leaders for Nutrition(영양증진을 위한 젊은 지도자들)이 그 예이다.

표 2.1 세계 및 지역별 30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

지역	총 국회의원 수	30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
아메리카	4,604	3.5%
아시아	6,494	1.5%
유럽	11,975	4.1%
중동·북아프리카	3,415	1.8%
태평양	660	1.7%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5,059	2.2%
전 세계	32,307	2.9%

출처: IPU PARLINE (2023).

4 "방치된 작물은 전통적으로 자급자족용으로 재배됐으나 20세기에 상업적 농업에 더 적합한 작물로 서서히 밀려났다."(Lefebvre et al. 2023)

박스 2.3 “청년을 포함시키지도 않는 실행 계획에 우리 청년이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아일랜드에 사는 소피 헐리썬우(Sophie Healy-Throw, 23세)는 Act4Food Act4Change의 공동 창립자이다. 또한 그는 영양강화를 위한 국제연합체(Global Alliance for Improved Nutrition(GAIN))의 글로벌 캠페인 책임자이자, 영양증진운동(Scaling Up Nutrition(SUN) Movement)의 리드 그룹 회원이며, ActionAid UK의 이사회 구성원이다. 그는 유엔 식량시스템 정상회의 청년 연극그룹(Youth Liaison Group)의 공동의장을 역임했다. 2023년 5월 인터뷰에서 그는 청년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에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청년 참여와 포용은 더욱 의미 있고 지속가능해야만 합니다.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게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 참여는 의미 있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관료적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실속 있고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회의나 세미나, 워크숍 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청년은 단지 의견을 전달받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함께 논의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이 NGO와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사회 임원직을 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며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은 정책의 공동창출자가 되어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며 지속가능한 정책 개발을 장려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가 개입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청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모든 영역에 투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영양개선 프로그램에 투자해 유아기에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식량 및 영양안보를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는 청년의 교육 결과를 향상시키고 청년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청년이 주도하는 이 조직들은 식량 문제, 식량 주권,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영양 및 환경 보호와 이를 위한 정책 시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식량시스템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정책 논의에 청년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음에도 의미 있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청년은 의사결정 과정에 피상적이고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스 2.3 참조). 청년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시스템 변화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진척은 여전히 매우 느리다. 청년이 피력하는 의견과 아이디어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책적인 조치를 고안하고 실행하는데 청년의 시각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Yunita et al. 2018; Maccauley et al. 2022; Orsini and Kang 2023).

식량 주권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년의 역량 강화

모든 계층의 지도자들은 청년의 에너지, 창의력과 역동성을 활용해 식량 시스템을 변화시킬 도덕적이고 경제적 책무가 있다. 식량시스템 변화에 대한 논의와 거버넌스에 청년을 개입시키는 것은, 특히 식량 주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영양 및 식량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혁신성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전략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32p 그림 2.3). 식량권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고 있으며, 식량 주권을 추구함으로써 사람들은 사회·문화·생태적으로 적합한 방식으로 식량권을 실현할 수 있다(Blue Bird Jernigan et al. 2021; Sampson et al. 2021). 청년은 다양한 방식으로 식량권 실현을 지원할 수 있다. 청년은 혁신을 통해 식량시스템을 지역 맥락에 맞고 영양 및 식량안보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청년은 현재 위기상황에 처한 다양한 전통적 재배 시스템과 토종 농작물 재배 시스템을 되살릴 수 있다. 토종작물과 소외된 농작물을 재배해 더욱 탄력적이고 지역 맥락에 어울리는 식량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지도자들은 건강, 교육, 기술 개발, 사회적 연결성 등 청년의 인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영역에 투자해야 하고 청년은 이러한 투자를 요구해야 한다. 고 품질 교육훈련은 청년의 생산성과 고용 가능성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역량개발과 인성을 위한 기반이 되고, 빈곤과 실업을 퇴치하며 평등을 촉진하고,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에도 득이 된다(Kdris et al. 2012). 청년을 위한 농업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엄격히 평가해 고용성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와 공여기관이 교육 프로그램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Maiga et al. 2020).



조셉 케탈(Josef Quetal, 27세)가 아이티, 시테 솔레이(Cité Soleil)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사례 연구 지역사회 식품 판매상을 지원하는 아이티

아이티 국민은 극도의 불안정과 날로 거세지는 폭력사태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수도인 포르토프랭스(Port-au-Prince)의 빈곤, 기아 수준, 이주민 수가 증가하고 있다. 혼란의 진원지는 갠단 간 무력충돌이 늘고 있는 인구밀집지역 시테 솔레이(Cité Soleil)이다. 2022년 7월 8일, 이 지역에서 갠단원은 하루 만에 어린이 6명을 포함해 95명을 살해했다(UN OHCHR 2023).

폭력사태가 심화되며 시테 솔레이 도시 안에서 이동이 한층 통제되는 위협적인 환경 탓에, 주민들은 물품을 비축하기 어려워졌고 지역사회 식품 판매상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이용할 수 있는 식품의 품질은 낮고 아이티 국민의 영양상태는 악화되고 있다.

컨설팅드와이드는 지역사회 파트너⁵와 함께 미국 국제개발처(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가 지원하는 Manje Pi Byen(“더 잘 먹기”)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시테 솔레이의 극도로 취약한 계층이 회복력을 강화하고 극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 4개의 핵심요소로 구성된다.

1. 영양과 식량 안보 지원
2. 경제회복과 시장 시스템
3. 젠더 기반 폭력으로부터 보호
4. 식수, 위생 및 보건

프로그램에 포함된 영양 인식제고 활동을 통해,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영양습관을 개선하고 식품 판매상의 지속가능한 생계와 소득원을 강화해 지역사회에 고품질의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한다.

결혼 후 2명의 자녀가 있는 식품 판매상 조셉 케탈은 시테 솔레이의 티 아이티(Ti Ayiti) 인근에 거주한다. 그는 Manje Pi Byen 프로그램이 큰 도움을 주었다고 말한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 2년간 참여했어요. Manje Pi Byen 프로그램은 제 소득활동을 위한 환경과 주민들의 영양상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 더 잘 먹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제 아이들 학비도 낼 수 있게 되었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지역사회에 식품이 부족했고 물품을 구매할 돈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고작 손님 10명에게 식품을 팔았지만 이제 50명이 넘는, 거의 60명에게 식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과일, 채소, 콩 및 두류, 계란, 식물성 기름과 고기를 팔고 있어요 저는 사업을 더 키워서 식품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도 팔고 싶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바랍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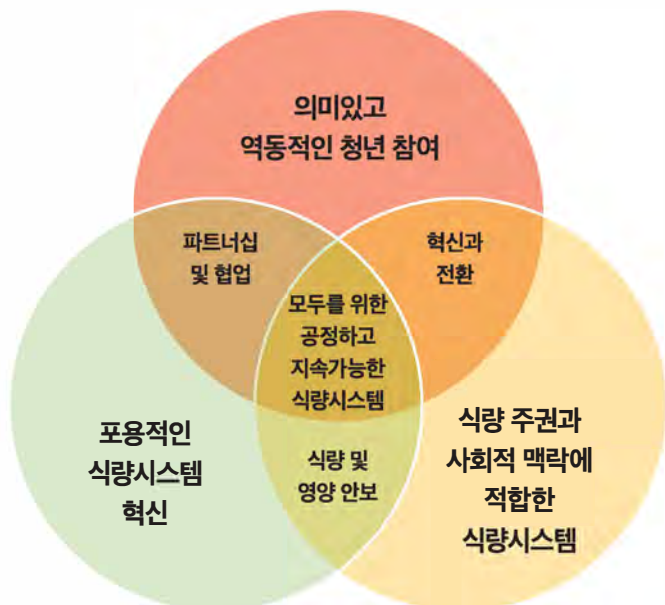
⁵ 이 사례 연구는 컨설팅드와이드가 제공했다. 컨설팅드와이드는 Manje Pi Byen 프로그램 중 ‘보호 분야(Protection Sector)’를 수행하기 위해 아이티의 두 지역사회 파트너와 협업하고 있다. IDEO는 주민 개개인의 심리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네게스 마원(Nègès Mawon)은 젠더 기반 폭력 생존자 사례 관리 활동을 주도하며 생존자들이 서로 일대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식량시스템 변혁에 청년이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수요, 도전과제, 다양한 열망, 상호교차성, 상황적 특수성을 인식해야 한다.

지속가능하고 회복 탄력적이며 공정한 식량시스템으로 전환된다면, 현재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에 공평하고 관심 있으며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Nguyen 2018; Mabhaudhi et al. 2019). 이러한 식량시스템은 청년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고 농식품 시스템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며, 청년의 창의성을 신장시켜 틈새시장을 공략해 생산기회를 제공한다. 이 비전을 달성하려면, 녹색직업, 토지, 청년 맞춤형 신용대출과 금융 서비스, 생산적인 자원과 장비, 시장에 대한 청년의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청년이 열정적으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농산물 가치사슬(Value Chain) 참여를 원하는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막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농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은 청년들, 혹은 토지나 생산 자원에 접근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와 민간은 농업 시장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촉진하는 것과 같이 비농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Geza et al. 2021). 농촌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운송, 물, 전기, 수확 후 관리와 저장 분야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가치사슬의 후방 산업(다운스트림)에도 투자해야 한다.

그림 2.3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식량시스템 달성



출처: 필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파리기후협약 등 식량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행 글로벌 정책 실행 과정에 청년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추진할 수 있다. 이미 활동 중인 국제청년단체, 포럼과의 연대를 강화해 청년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정책입안자가 포용적이고 청년에게 알맞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식량시스템과 정책 프로세스에서 현재 청년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HLPE 2021). 청년이 처한 환경과 역량 및 기회는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청년이 식량시스템 변혁에 주체가 되도록 역량을 강화하려면 청년의 수요, 도전과제, 다양한 열망, 상호교차성, 상황적 특수성을 인식해야 한다.

결론

우리 청년은 현행 식량시스템이 지속가능하지 않고 불공정하며 포용적이지 않고 외부 충격과 위기에 취약하다는 것을 안다. 우리 세대는 이렇듯 결함 있는 식량시스템을 이어받아 앞으로 수십 년 이상 살아야 한다. 우리는 21세기의 식량시스템을 포용적이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하고 회복 탄력적이며 각 지역에 적합하게 안착되도록 보장하는 일에 큰 관심이 있다. 지구보건 및 그리고 인간의 웰빙과 행복을 위해 지속가능한 식량시스템으로의 변혁이 필요하다. 전환된 식량시스템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광범위하게 확산시킬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하며 기후위기 피해여파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식량시스템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생계를 꾸리는 대다수 청년은 농촌 지역에서 생활한다. 따라서, 식량시스템에 청년을 적극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농촌 경제 개선, 사회적 웰빙, 서비스 제공 등 광범위한 영역에 중점을 두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청년이 식량시스템 속에서 진로를 결정하고 식량시스템에 관심을 보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계화, 농업 자문 시스템, 관개 시설 등 혁신 사업에 투자해 농업 활동의 수익을 늘리고 노동 강도를 줄인다면, 청년에게 다양한 고용기회를 제공해 더 많은 청년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다.

식량시스템을 변혁시키고 미래 세대를 위해 청년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계층의 지도자들은 2030년을 넘어서 2050년 이후까지 고려하는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장기적 계획에서, 지도자는 단순히 청년과의 소통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지도자는 포용성, 공정성,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청년을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시켜야 한다. 동시에 청년은 식량시스템 거버넌스

에 참여하고 사회적 정의를 옹호하며, 성평등을 실현하고 식량권과 식량 주권을 보호하며, 기후위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청년의 시각을 정책에 통합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잡아야 한다.



나자이르 남코마나(Nazaire Namkomana, 29세)는 가금류 사육 교육을 이수하고 현재 꾸준히 닭 사육량을 늘리고 있다.

사례 연구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회복 탄력성을 위한 청년 창업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연이어 발생한 위기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관을 약화시켰고 사회와 교육 인프라를 파괴했으며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악화시켰다. 청년은 기초적인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에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에 제대로 통합되지 못하면 무장한 민병대 입단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UN OCHA 2023b).

이런 상황에서 도입된 '실업청년 및 국내 실향민의 농직업훈련(Agricultural Vocational Training for Unemployed and Internally Displaced Youth)' 프로젝트의 목표는 반구이(Bangui) 지역의 18-35세 청년이 사회경제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이주와 범죄율을 낮추는 것이다. 참가자들을 프로젝트를 통해 기타 보완적인 프로젝트와 함께 다양한 농업교육과 창업을 지원받게 되며, 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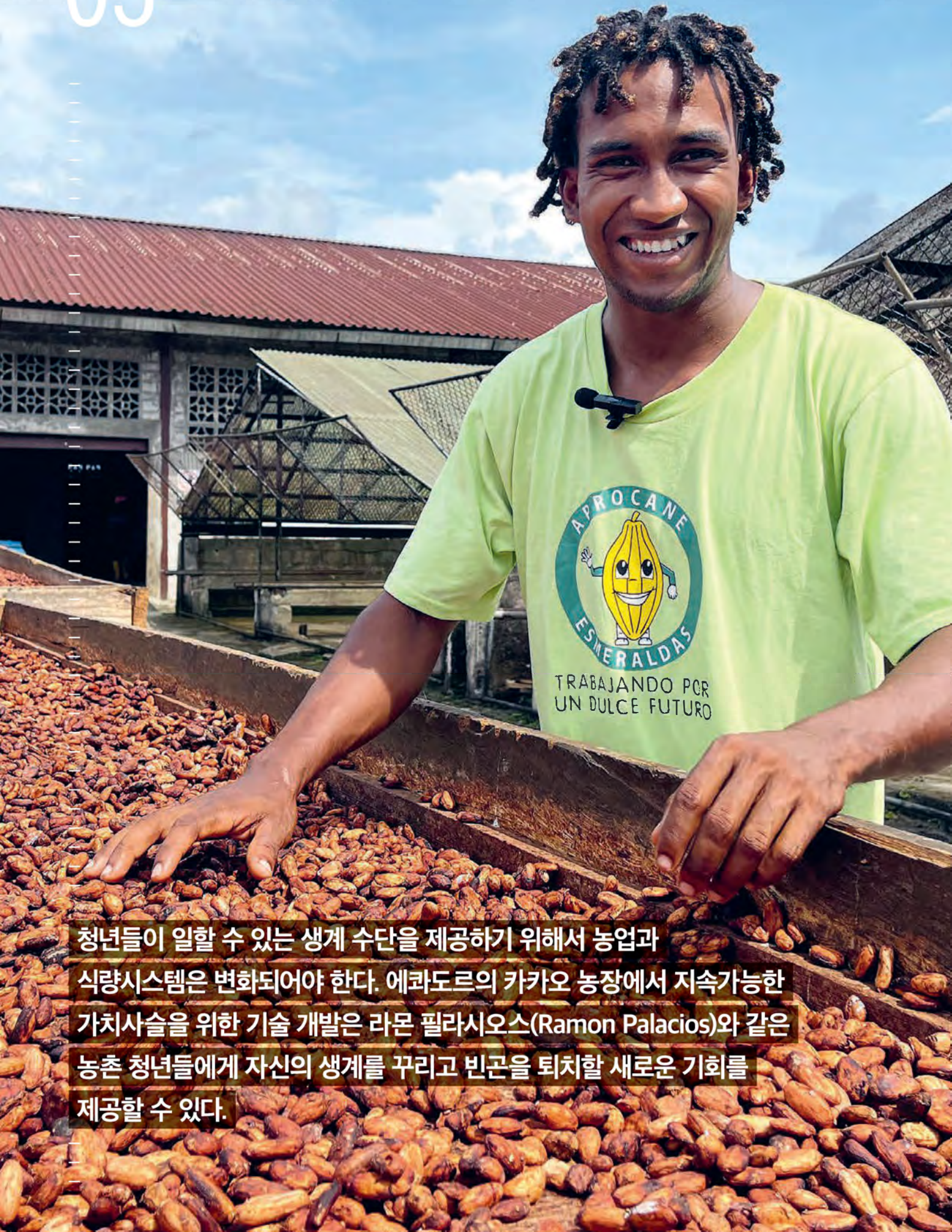
인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의 경제와 식량시스템⁶에 통합될 수 있다.

나자이르 남코마나는 2019년 농업기술훈련센터에 입학해 가금류 사육에 대한 교육을 받은 졸업생이다. 그는 여기서 습득한 신기술로 소득을 창출하고 가게 식량안보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

“훈련을 받기 전에는 가족을 어떻게 부양할지 고민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종종 먹을거리가 부족했으니까요. 지금은 아이들 학비까지 총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도 농장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가금류 사육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제가 이 분야에 종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훈련을 받고 나서 닭 50마리를 사육하기 시작했는데, 100마리 150마리를 넘어 지금은 200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훈련 이수 후 나자이르는 자신이 습득한 기술을 다른 청년들과 공유했다. “제 사육장을 커다란 양계장으로 키워서 가족부양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명문학교에 입학시키고 우리 마을의 청년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제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⁶ 이 사례 연구는 세계기아원조(WHH)가 제공했다. 함께 진행한 보완 프로젝트명은 '여성 및 청년 대상 고용 기회 창출(Creating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Women and Young Adults)'이다. 두 프로젝트 모두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Germa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BMZ)가 자금을 지원했고 세계기아원조가 실행했다.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생계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 농업과 식량시스템은 변화되어야 한다. 에콰도르의 카카오 농장에서 지속가능한 가치사슬을 위한 기술 개발은 라몬 필라시오스(Ramon Palacios)와 같은 농촌 청년들에게 자신의 생계를 꾸리고 빈곤을 퇴치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정책 권고

세계가 직면한 복합위기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기아위험 속도를 저해하고 있다. 인구구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과 청년이 이 복합위기의 부담을 떠안아야 실정이다. 그러나 정작 식량시스템 정책 논의와 의사결정 과정에 이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아래에 나열한 정책 권고 사항은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형성하는 과정에 관심 있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재와 미래 세대의 식량권을 충족하고 모두에게 공평하고 지속가능하며 탄력적인 식량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세대 간 정의(Generational Justice)와 젠더 정의(Gender Justice)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1 식량시스템 변혁의 핵심은 모든 사람의 식량권 보장이다

- 식량시스템 정책, 프로그램, 거버넌스 프로세스는 식량권을 중심으로 두고 실행해야 한다. 식량권은 국내법에 명기하고 책무성 메커니즘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고유한 식량시스템을 정의해 지역적 맥락에서 사회적, 문화적, 생태적으로 적합한 방식으로 식량권을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청년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정책과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청년의 의견을 의미 있게 반영해야 한다.
- 식량시스템 정책과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행 및 감시하는 과정에서 인구 구성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청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청년의 장기적인 관점을 통합시키며 청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활용해야 한다.

2 청년의 역량 강화에 투자해 식량시스템 변혁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도록 한다

- 청년이 식량시스템에 제대로 참여하기 위해서 농업 및 기타 식량시스템 활동에 관한 교육, 훈련, 기술 개발, 맞춤형 역량 개발에 대한 청년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따라서 필요한 교과과정, 감사, 교육기관에 추가적인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 청년 중 특히 젊은 여성의 건강증진과 영양개선을 위한 투자는 미래 세대의 건강과 행복에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재정적, 정치적 투자를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현지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에게 영양교육을 제공하고 조세정책과 규제정책을 활용해 청년이 건강한 식단을 실천하고 초가공 식품을 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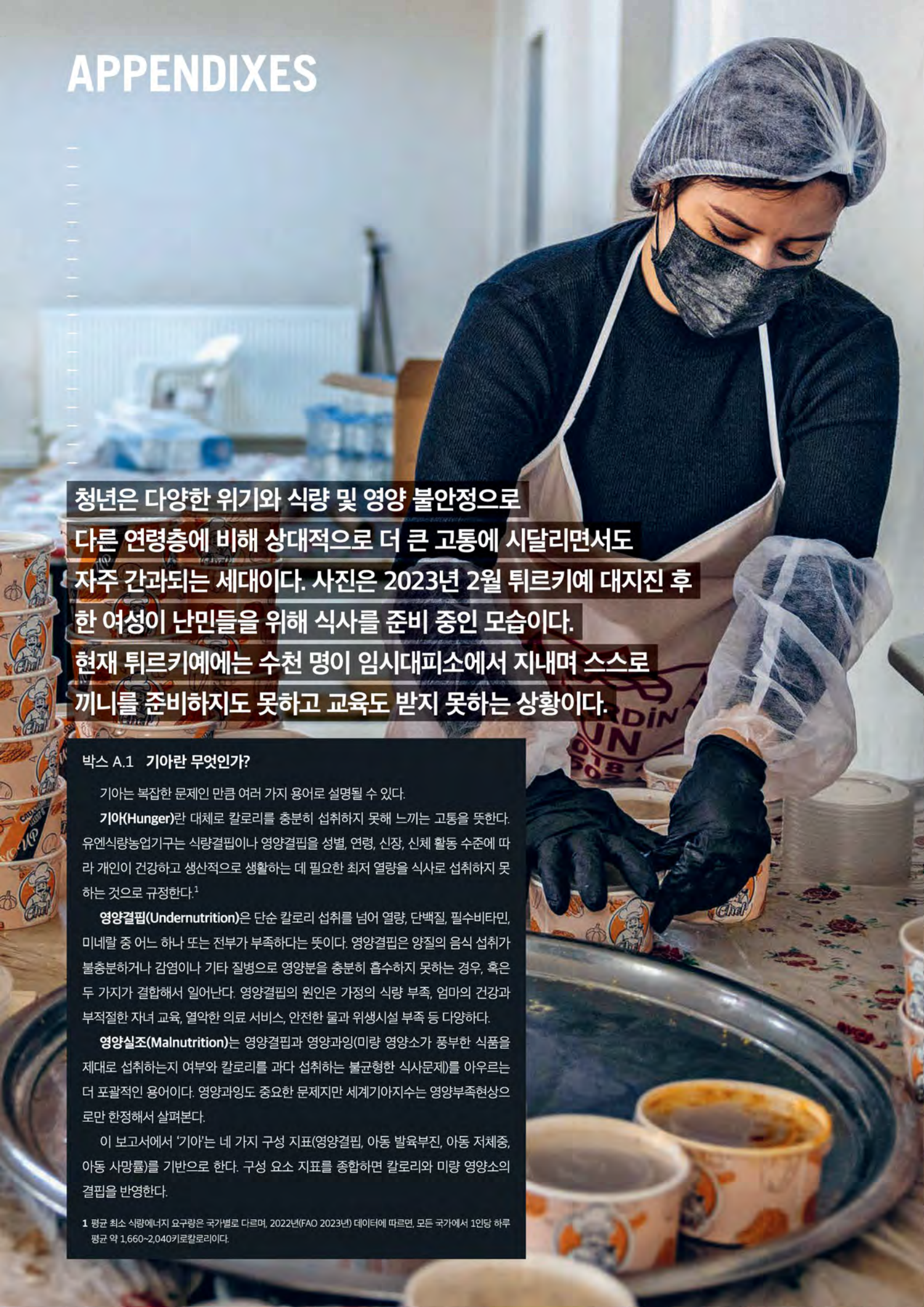
• 정부는 생산적인 자원에 대한 청년의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농지와 재산권을 개혁해 청년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야 한다. 청년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신용 대출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청년이 자금을 저축하고 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 투입요소에 대한 청년의 접근성을 높여 청년을 식량시스템에 참여시켜야 한다.

• 성평등 개념을 사회와 경제 프로그램에 통합시켜 젊은 여성의 고용과 교육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무급 돌봄노동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지속가능하고 공정하며 탄력적인 식량시스템에 투자해 식량시스템이 청년에게 실행 가능하고 매력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 정부는 토착 및 전통 지식과 더불어 현대 기술, 기계화, 관개 시설을 통합한 농업 생산을 지원하고 다변화시켜 농업 수익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노동 강도도 줄여야 한다. 여기에는 기상 예보, 금융 서비스, 기술 자문 등과 관련된 디지털 기기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일을 포함한다.
- 정부와 공여기관들은 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며 청년 통합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농촌 경제에 투자해야 한다. 기업 정책은 사회적인 혁신을 끌어내고 식량시스템 내 비농업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독려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사회와 현지 시장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가공, 저장, 마케팅, 운송 등 농산물의 수확 전후 관리에 투자하여 식량시스템을 모든 수준에 맞게 현지화하고 변혁시키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 정부는 고용 조건을 개선하고 식량시스템 내 공정한 임금을 보장해 청년에게 농업과 식량시스템 활동으로 생계를 꾸려 소득을 창출하고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 현재 식량시스템 정책과 이에 대한 투자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세대 간 전이되는 기아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고 있다. 그 해결책은 2030년 너머를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에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식량 및 영양안보를 보장받길 바라는 청년들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다.

APPENDIXES



청년은 다양한 위기와 식량 및 영양 불안정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자주 간과되는 세대이다. 사진은 2023년 2월 튀르키예 대지진 후 한 여성이 난민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 중인 모습이다. 현재 튀르키예에는 수천 명이 임시대피소에서 지내며 스스로 끼니를 준비하지도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박스 A.1 기아란 무엇인가?

기아는 복잡한 문제인 만큼 여러 가지 용어로 설명될 수 있다.

기아(Hunger)란 대체로 칼로리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 느끼는 고통을 뜻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식량결핍이나 영양결핍을 성별, 연령, 신장, 신체 활동 수준에 따라 개인이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저 열량을 식사로 섭취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한다.¹

영양결핍(Undernutrition)은 단순 칼로리 섭취를 넘어 열량, 단백질, 필수비타민, 미네랄 중 어느 하나 또는 전부 부족하다는 뜻이다. 영양결핍은 양질의 음식 섭취가 불충분하거나 감염이나 기타 질병으로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두 가지가 결합해서 일어난다. 영양결핍의 원인은 가정의 식량 부족, 엄마의 건강과 부적절한 자녀 교육, 열악한 의료 서비스, 안전한 물과 위생시설 부족 등 다양하다.

영양실조(Malnutrition)는 영양결핍과 영양과잉(미량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을 제대로 섭취하는지 여부와 칼로리를 과다 섭취하는 불균형한 식사문제)를 아우르는 더 포괄적인 용어이다. 영양과잉도 중요한 문제지만 세계기아지수는 영양부족현상으로만 한정해서 살펴본다.

이 보고서에서 '기아'는 네 가지 구성 지표(영양결핍, 아동 발육부진, 아동 저체중, 아동 사망률)를 기반으로 한다. 구성 요소 지표를 종합하면 칼로리와 미량 영양소의 결핍을 반영한다.

¹ 평균 최소 식량에너지 요구량은 국가별로 다르며, 2022년(FAO 2023년) 데이터에 따르면, 모든 국가에서 1인당 하루 평균 약 1,660~2,040킬로칼로리이다.





세계기아지수 산출 방법론

참고: 이 2023 세계기아지수 보고서 결과는 이전의 모든 보고서(GHI) 결과를 대체한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2000년, 2008년, 2015년의 점수와 지표 데이터는 현재 시간 경과에 따른 GHI의 유효한 비교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이다.

세계기아지수는 세계, 지역, 국가 단위에서 기아를 포괄적으로 측정하고 추적, 관측하는 도구다.² 기아 증식에 얼마나 많은 진전이나 후퇴가 있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세계기아지수는 매년 산출된다. 세계기아지수의 목적은 기아와 싸워야 한다는 인식과 이해를 높이고, 국가와 지역 간 기아 상황을 비교할 방법을 제시하며, 기아가 가장 심각한 곳을 밝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 알리는 것이다.

세계기아지수 구성 요소

세계기아지수는 기아의 다차원성을 잘 담고 있는 네 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  **영양결핍(Undernourishment):** 영양결핍을 겪는 인구의 비율 (섭취는 칼로리의 양이 부족한 인구)
-  **아동 발육부진(Child stunting):** 발육이 부진한 5세 미만 아동의 비율(연령 대비 신장이 작은 것으로, 만성 영양부족의 결과)
-  **아동 저체중(Child wasting):** 체중이 미달인 5세 미만 아동의 비율(신장에 비해 체중이 가벼운 것으로, 급성 영양부족의 결과)
-  **아동 사망(Child mortality):**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비율(불충분한 영양섭취와 비위생적인 환경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치명적인 결과)³

네 가지 지표를 결합해 기아를 측정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표 A.1). 이 지표들은 칼로리 결핍과 영양부족을 모두 반영하기 때문이다. 영양결핍 지표는 전체 인구의 기아 실태를 측정하고, 아동 관련 지표들은 전체 인구 등 가장 취약한 집단의 영양 상태를 동시에 반영한다. 특히 아동이 식사를 통한 열량이나 단백질, 미량 영양소(필수 비타민과 미네랄)가 부족하면 질병과 신체적, 인지적 발달 저하, 그리고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아동 발육 부진과 아동 저체중을 측정에 포함하면 급성 및 만성 영양부족 문제를 모두 반영할 수 있다.

표 A.1 세계기아지수의 기초가 되는 네 가지 지표가 기아의 다차원적 성격을 어떻게 담아내는가

영양결핍 (Undernourishment)	아동 발육부진 (Child stunting)	아동 저체중 (Child wasting)	아동 사망 (Child morta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 접근성의 불충분한 정도를 측정, 기아의 중요한 지표임 • 성인과 아동을 포함한 인구 전체 • 지속가능발전목표 2(제로 굶기를 포함한 세계 기아 인구 감소 목표의 선행 지표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로리를 넘어서 식사의 질과 효율을 모두 고려 • 아동은 특히 영양결핍에 취약 • 가정 내 불균형한 식량분배에 취약 • 저체중과 발육부진인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영양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아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죽음, 아동이 가장 취약 • 미량영양소 결핍을 반영 • 영양결핍으로 인한 사망 위험의 일부만 반영하는 발육부진율과 저체중률을 보완함 	

이 지수는 여러 지표를 결합하여 오류 측정을 최소화하였다. 네 가지 지표는 모두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진척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의 일부이다.

세계기아지수 산출 공식

첫째, 네 가지 구성 지표값은 각국에서 입수한 최신 데이터로 결정한다.

둘째, 1988년 이후 전 세계에서 관찰한 해당 지표의 가장 높은 국가 값보다 조금 높게 정한 기준값을 바탕으로 네 가지 구성 요소 지표 각각에 표준 점수를 부여한다.⁴ 예를 들면, 이 기간에 추정된 가장 높은 영양결핍 값이 76.5%면 표준화를 위한 기준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80%다.⁵

해당 연도에 한 국가의 영양결핍률이 40%라면 그해 영양결핍 표준점수는 50점이다. 다시 말해 그 국가는 영양결핍이 없는 상태와 최고 수준 사이에서 대략 절반에 위치한다.

$\frac{\text{영양결핍률}}{80}$	$\times 100$	= 표준 영양결핍률
$\frac{\text{아동 발육부진율}}{70}$	$\times 100$	= 표준 아동 발육부진율
$\frac{\text{아동 저체중률}}{30}$	$\times 100$	= 표준 아동 저체중률
$\frac{\text{아동 사망률}}{35}$	$\times 100$	= 표준 아동 사망률

⁴ 기준값은 가장 높은 값보다 조금 높게 설정하여 향후 이러한 값이 초과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한다.

⁵ 영양결핍에 대한 기준값은 관찰된 최대치 76.5% 기준으로 80이고, 아동 저체중의 기준값은 관찰된 최대치 26%를 기준으로 30이다. 아동 발육부진에 대한 기준값은 관찰된 최대치 68.2%를 기준으로 70이며, 아동 사망의 기준값은 관찰된 최대치 32.6%를 기준으로 35이다. 원래 기준값은 방법론적 검토 과정에서 앞서 사용 가능한 25년 치 데이터를 포괄하는 1988년과 2013년 사이에 관측된 최댓값을 기준으로 설정되었지만, 이후 이 값을 초과하지 않았다.

² 세계기아지수 개념의 탄생 배경은 Wiesmann, von Braun, and Feldbrügge (2000), Wiesmann (2006), Wiesmann et al. (2015)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³ Black et al. (2013)에 따르면, 5세 미만 아동 사망의 45%는 영양부족에 의해 발생한다.

셋째, 표준 점수를 합산해 각국의 세계기아지수 점수를 산출한다. 영양결핍과 아동 사망률은 각각 세계기아지수의 1/3을 차지하는 반면 아동의 영양부족 지표인 발육부진과 저체중은 각각 점수의 1/6을 차지한다(그림 A.1).

그림의 세 단계를 통해 100점 심각도 척도의 세계기아지수를 산출할 수 있는데, 그때 0은 기아가 없는 가장 최고점, 100은 가장 최저점이 된다. 실제로 어느 극단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0점은 한 국가 내에 영양결핍 인구, 5세 미만 아동 중 발육부진, 저체중 또는 사망이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100점은 한 국가의 세계기아지수 구성 요소들이 최근 수십 년간 가장 최악의 수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지표 데이터 출처

세계기아지수(GHI) 점수 계산에 사용된 데이터는 표 A.2에 표시된 바와 같이 다양한 유엔 산하 기관 및 다자협력 기관에서 제공한 것이다. GHI 점수는 가장 최근에 수정된 네 가지 데이터를 반영한다.⁶ 원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가장 최근에 입수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GHI 종합 지표를 추정했다.

데이터가 부족한 국가의 기아 심각도 평가

올해 보고서에서 136개국이 세계기아지수 포함 기준을 충족했지만, 2023년 세계기아지수 산출을 위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11개국이 있었다. 이런 격차를 해소하고 데이터가 누락된 국가의 기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잠정적 기아 심각성을 파악했다(표 A.3 참조):

- 사용 가능한 GHI 지표값
- 해당 국가의 최근 알려진 GHI 심각도
- 해당 국가의 최근 알려진 영양부족 유병률⁷
- 해당 국가가 위치한 하위 지역의 영양부족 유병률
- 2021년, 2022년, 2023년 세계식량위기 보고서(Global Report on Food Crises) (FSIN and GNAFC 2021, 2022, 2023).⁸

일부 국가는 무력분쟁이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데이터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기아와 영양결핍을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변수이다(FAO et al. 2017; Martin-Shields and Stojetz 2019). 데이터가 누락된 국가는 종종 큰 기아 부담에 직면한 국가일 수 있다. 부룬디, 소말리아, 남수단 등 잠정적으로 위험 국가로 지정된 3개국 중 데이터가 완전하다면 한 국가 이상이 ‘매우 위험’ 국가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를 확신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각 국가를 보수적으로 ‘위험’ 국가로 분류했다.

2006년 첫 세계기아지수가 발표된 후 영양실조 유병률, 세계기아지수 점수 또는 세계기아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잠정적 심각도조차 결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소말리아와 남수단의 경우 세계기아지수를 산출하기 위한 4개 지표 중 2개 지표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21년, 2022년, 2023년 세계식량위기 보고서(Global Report on Food Crises)의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두 국가의 식량과 영양 불안정 상황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두 국가의 기아지수가 ‘위험’ 수준이라는 것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인정된다.

⁷ 이전에 발표된 영양부족 수치, GHI점수, GHI 심각도는 후속 보고서가 발행된 이후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한 국가가 광범위한 영양부족 수치와 GHI점수에 포함될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해 참고로 사용
⁸ 세계식량위기 보고서(Global Report on Food Crises)는 영양실조 유병률로 측정되는 만성 기아와는 다른 급성 식량 불안정에 대해 보고한다. 그러나 2021년, 2022년, 2023년 세계식량위기 보고서는 2020년, 2021년, 2022년에 기근, 기근 위험 및 반복되는 기아와 같이 극심한 기아 위기를 경험한 국가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었다.

⁶ 이전 GHI 계산은 von Grebmer et al.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IFPRI, WHH, and Concern Worldwide (2007); Wiesmann, Weingärtner, Schöniger (200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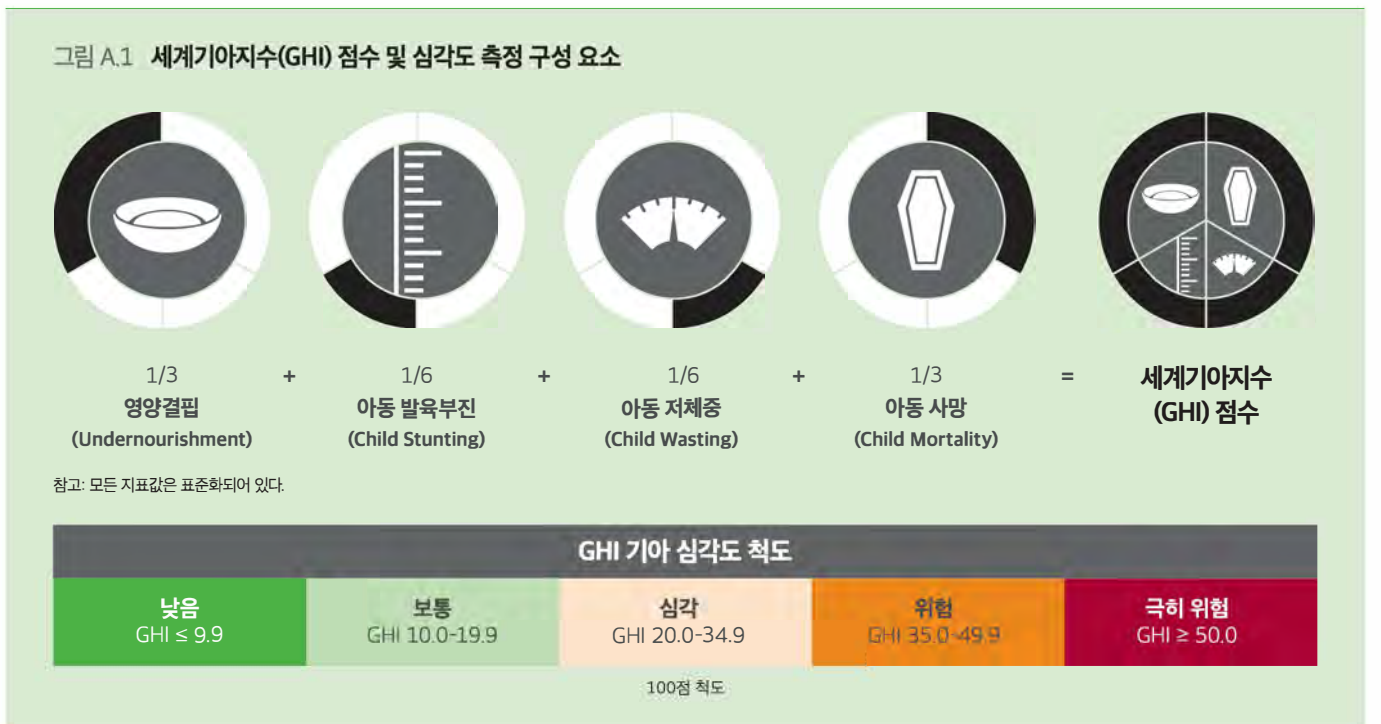


표 A.2 세계기아지수 구성지표의 데이터 출처 및 기준연도 2000, 2008, 2015, 2023년

지표	데이터 출처	구성지표의 기준연도			
		2000 GHI 점수 (122 개국)	2008 GHI 점수 (125 개국)	2015 GHI 점수 (125 개국)	2023 GHI 점수 (125 개국)
영양결핍 유병률	FAO 2023	2000-2002 ^a	2007-2009 ^a	2014-2016 ^a	2020-2022 ^a
아동 발육부진과 저체중	WHO 2023; UNICEF et al. 2023a; UNICEF 2023a, 2013, 2009; MEASURE DHS 2023	1998-2002 ^b	2006-2010 ^c	2013-2017 ^d	2018-2022 ^e
아동 사망률	UN IGME 2023a	2000	2008	2015	2021

참고: 각 연도 또는 기간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수는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A 3년 평균

B 2000년에 가까운 해에 수집된 데이터, 1998년과 2002년 또는 1999년과 2001년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평균값을 사용했다.

C 2008년에 가까운 해에 수집된 데이터, 2006년과 2010년 또는 2007년과 2009년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평균값을 사용했다.

D 2015년에 가까운 해에 수집된 데이터, 2013년과 2017년 또는 2014년과 2016년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평균값을 사용했다.

E 이 기간에 수집된 최신 데이터.

표 A.3 데이터가 부족한 국가의 기존 데이터 및 잠정 지정 심각도

국가	2023 세계기아지수 잠정 지정 심각도	아동 발육부진 2018-2022(%)	아동 저체중 2018-2022(%)	아동 사망 2021(%)	최근 세계기아지수 단계	최근 영양결핍률(%)	지역 내 영양결핍률(%)	잠정 지정을 위한 영양결핍률(%)
레바논	낮음	7.0	1.4	0.8	보통(2022)	10.9 (2022)	10.5	0.0-16.2
요르단	보통	7.4	0.6	1.5	보통(2022)	16.9 (2022)	10.5	15.4-39.4
부룬디	위험	55.8	4.9	5.3	극히 위험(2014)	67.3 (2014)	28.4	33.3-69.3
소말리아	위험	—	—	11.2	극히 위험(2021)	48.7 (2023)	28.4	**
남수단	위험	—	—	9.9	—	21.4 (2023)	28.4	**
바레인	미지정	3.1*	1.8*	0.7	—	—	10.5	N/A
부탄	미지정	18.3*	2.6*	2.7	—	—	15.9	N/A
적도기니	미지정	25.2	3.9	7.7	—	—	28.4	N/A
에리트레아	미지정	—	—	3.8	극히 위험(2014)	61.3 (2014)	28.4	N/A
몰디브	미지정	15.3	9.3	0.6	—	—	15.9	N/A
카타르	미지정	1.9	1.2	0.5	—	—	10.5	N/A

출처: 필진, Appendix A에 수록된 자료와 이전 세계기아지수 보고서들의 데이터를 참고함. 참고: 괄호 속 연도는 관련 정보가 세계기아지수 보고서에 담긴 연도를 의미

*필진의 추정치. **FSIN AND GNAFC (2021, 2022, 2023)와 전문가 컨설팅에 기초해 지정. N/A = 해당 없음. — = 자료 없음.

2000, 2008, 2015, 2023년 세계기아지수 점수 계산의 기초 자료

표에 표시된 색상은 다음 범주를 나타낸다.

■ = 매우 낮음 □ = 낮음 □ = 중간 □ = 높음 ■ = 매우 높음

다음과 같이 다양한 지표값에 대한 임계값을 기반으로 한다.

분류	영양결핍	아동 발육부진	아동 저체중	아동 사망
매우 낮음	<5%	<2.5%	<2.5%	<1%
낮음	5-15%	2.5-5%	2.5-10%	1-4%
중간	15-25%	5-10%	10-20%	4-7%
높음	25-35%	10-15%	20-30%	7-10%
매우 높음	≥35%	≥15%	≥30%	≥10%

참고: 영양실조 유병률에 대한 임계값은 FAO(2015)에서 참고한 것이다. 아동 발육부진 및 아동 저체중에 대한 임계값은 de Onis et al. (2019)에서 가져온 것이다. 아동 사망률에 대한 임계값은 UN IGME(2023b)에 표시된 임계값을 적용하되, 표시된 5가지 범주로 압축했다.

2000, 2008, 2015, 2023년 세계기아지수 산출 기초자료

국가	영양결핍률(%)				5세 미만 아동 저체중률(%)				5세 미만 아동 발육부진율(%)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00-'02	'07-'09	'14-'16	'20-'22	'98-'02	'06-'10	'13-'17	'18-'22	'98-'02	'06-'10	'13-'17	'18-'22	2000	2008	2015	2021
Afghanistan	46.4	25.4	21.3	30.1	10.9 *	8.4 *	9.5	3.7	50.3 *	50.8 *	40.4	44.7	12.9	9.6	7.0	5.6
Albania	4.9	7.4	4.3	4.1	7.5 *	9.6	4.2 *	1.6	32.0 *	23.2	15.7 *	11.3	2.7	1.6	1.0	0.9
Algeria	8.1	5.6	2.6	<2.5	3.1	4.1	4.1	2.7	23.6	15.4	11.7	9.8	4.2	3.0	2.5	2.2
Angola	67.8	43.6	13.5	21.6	9.2 *	8.3	4.9	6.0 *	50.4 *	29.2	37.6	29.4 *	20.5	13.8	8.8	6.9
Argentina	3.1	3.4	2.7	3.2	2.1 *	1.2	1.9 *	2.7	10.4 *	8.2	8.1 *	12.3	2.0	1.5	1.2	0.7
Armenia	25.7	5.8	<2.5	<2.5	2.5	4.1	4.4	3.3 *	17.3	20.9	9.4	10.9 *	3.1	2.1	1.4	1.1
Azerbaijan	16.8	<2.5	<2.5	<2.5	9.0	6.8	3.2	3.6 *	24.2	26.5	17.8	12.0 *	7.5	4.3	2.6	1.9
Bahrain	—	—	—	—	2.2 *	1.9 *	1.8 *	1.8 *	4.1 *	3.3 *	3.1 *	3.1 *	1.2	0.9	0.7	0.7
Bangladesh	15.6	12.9	14.8	11.2	12.5	17.5	15.6	11.0	51.1	43.2	32.7	23.6	8.6	5.5	3.8	2.7
Belarus	<2.5	<2.5	<2.5	<2.5	2.4 *	2.1 *	2.1 *	1.9 *	6.4 *	3.9 *	3.4 *	3.4 *	1.3	0.7	0.4	0.3
Benin	17.3	9.1	8.1	9.9	9.0	5.2	4.5	5.0	36.2	37.4	34.0	32.2	13.7	11.4	9.8	8.4
Bhutan	—	—	—	—	2.6	4.5	3.1 *	2.6 *	47.7	34.9	25.3 *	18.3 *	7.7	4.8	3.3	2.7
Bolivia (Plurinat. State of)	27.8	24.9	16.0	19.4	1.6	1.4	2.0	1.5 *	33.2	27.1	16.1	18.1 *	7.6	4.7	3.2	2.5
Bosnia & Herzegovina	3.4	<2.5	<2.5	<2.5	7.4	4.0	3.6 *	3.4 *	12.1	11.8	8.6 *	7.5 *	1.0	0.8	0.6	0.6
Botswana	23.8	22.3	24.1	22.9	5.9	7.3	6.0 *	5.4 *	29.1	28.9	18.9 *	16.7 *	7.4	6.9	4.5	3.5
Brazil	10.7	5.1	<2.5	4.7	2.8 *	1.8	2.1 *	3.1	10.0 *	7.0	7.1 *	7.2	3.5	2.1	1.6	1.4
Bulgaria	3.9	4.4	3.7	<2.5	4.9 *	4.7	5.9	4.2 *	11.1 *	9.2	7.0	6.5 *	1.7	1.1	0.8	0.6
Burkina Faso	22.9	15.4	13.3	16.2	15.5	11.3	10.2	10.1	41.4	35.1	30.1	22.1	17.9	13.3	10.1	8.3
Burundi	—	—	—	—	8.1	6.0 *	5.1	4.9	64.0	56.8 *	55.9	55.8	15.5	10.3	6.8	5.3
Cabo Verde	15.0	13.3	21.4	18.2	4.1 *	3.2 *	3.1 *	3.0 *	15.0 *	10.0 *	8.7 *	7.8 *	3.8	2.8	2.0	1.4
Cambodia	24.3	15.2	6.9	4.8	17.1	9.1	9.7	9.6	49.0	39.5	32.4	21.9	10.6	5.1	3.2	2.5
Cameroon	22.7	11.1	4.4	6.4	7.3	7.6	5.2	4.3	36.6	37.6	31.7	28.9	14.4	11.8	8.8	7.0
Central African Republic	38.5	32.6	49.1	48.7	10.4	12.1	6.2	5.3	44.4	43.6	38.0	40.0	16.6	13.7	11.6	10.0
Chad	38.6	40.2	26.2	31.4	13.9	16.3	13.3	8.3	38.9	38.7	39.8	28.0	18.4	15.6	12.9	10.7
Chile	3.5	3.6	3.1	2.5	0.5	0.3	0.3	0.3 *	3.0	2.0	1.8	1.9 *	1.1	0.9	0.8	0.7
China	10.1	3.9	<2.5	<2.5	2.5	2.6	1.9	1.7 *	17.8	9.8	6.5	4.8 *	3.7	1.8	1.1	0.7
Colombia	8.9	11.5	4.9	6.6	1.0	0.9	1.6	1.0 *	18.2	12.6	12.7	10.2 *	2.5	2.0	1.6	1.3
Comoros	25.2	20.0	12.4	13.5	13.3	9.2 *	10.6 *	9.9 *	46.9	39.9 *	30.2 *	28.6 *	9.6	7.8	6.1	5.0
Congo (Republic of)	27.0	36.1	27.7	33.3	9.2 *	8.0 *	8.2	7.8 *	30.8 *	26.7 *	21.2	24.0 *	11.4	6.9	5.3	4.3
Costa Rica	4.7	3.9	4.2	3.0	1.9 *	0.7	1.1 *	1.8	10.9 *	5.6	5.2 *	9.0	1.3	1.1	0.9	0.8
Côte d'Ivoire	18.2	18.9	11.9	7.7	6.9	14.3	6.1	8.4	31.2	39.0	21.6	23.4	14.3	11.4	9.0	7.5
Croatia	6.9	<2.5	<2.5	<2.5	1.3 *	1.1 *	1.1 *	1.0 *	1.3 *	0.9 *	0.9 *	0.8 *	0.8	0.6	0.5	0.5
Dem. Rep. of the Congo	27.9	28.4	30.2	35.3	15.9	10.4	8.1	6.4	44.4	45.8	42.7	41.8	16.0	12.3	9.6	7.9
Djibouti	42.1	21.3	21.3	16.8	19.4	17.0	13.9	10.6	27.1	33.0	28.0	20.9	10.1	8.1	6.6	5.4
Dominican Republic	20.6	16.2	7.4	6.3	1.5	2.3	2.4	2.2	7.7	10.1	7.1	6.7	4.0	3.6	3.5	3.3
Ecuador	21.0	21.1	9.0	13.9	2.7	2.1	1.6	3.7	27.9	25.9	23.9	23.0	3.0	2.1	1.5	1.2
Egypt	5.2	5.5	5.8	7.2	7.0	7.9	9.5	5.4 *	24.4	30.7	22.3	21.2 *	4.7	3.1	2.3	1.9
El Salvador	7.3	10.0	9.6	7.7	1.5	1.6	2.1	1.0 *	32.3	20.8	13.6	13.3 *	3.3	2.1	1.5	1.2
Equatorial Guinea	—	—	—	—	9.2	3.1 *	3.0 *	3.9 *	42.7	28.6 *	24.4 *	25.2 *	15.6	12.0	9.4	7.7
Eritrea	—	—	—	—	15.0	14.6	—	—	43.0	52.5	—	—	8.5	6.0	4.6	3.8
Estonia	3.5	<2.5	<2.5	<2.5	1.5 *	1.5 *	1.5	1.3 *	1.5 *	1.1 *	1.2	1.2 *	1.1	0.5	0.3	0.2
Eswatini	10.5	11.6	14.4	11.6	1.7	1.1	2.0	1.2 *	36.5	40.4	25.5	28.2 *	11.2	10.4	6.4	5.3
Ethiopia	46.7	33.5	14.5	21.9	12.4	10.6 *	9.4	6.8	57.4	49.9 *	39.4	36.8	14.0	9.2	6.2	4.7
Fiji	4.0	3.7	9.2	6.6	7.0 *	6.2 *	5.7 *	4.6	6.7 *	5.6 *	4.7 *	7.2	2.3	2.4	2.4	2.8
Gabon	10.8	16.8	16.3	23.0	4.2	3.8 *	3.3 *	3.4	25.9	19.7 *	16.5 *	14.4	8.4	6.7	5.0	4.0
Gambia	18.0	15.4	15.9	19.6	9.1	8.5	11.0	5.1	24.1	25.5	24.6	17.5	11.4	8.1	6.0	4.8
Georgia	7.2	3.5	3.6	2.9	3.1	1.3	0.6 *	0.6	16.1	11.8	6.0 *	5.8	3.7	1.7	1.0	0.9
Ghana	14.9	8.1	8.2	4.9	9.9	8.7	4.7	6.0	30.6	28.4	18.8	17.5	10.0	7.6	5.5	4.4
Guatemala	22.7	18.2	15.7	13.3	3.7	1.0	1.3	0.8	51.0	51.5	45.0	46.0	5.2	3.8	2.8	2.3
Guinea	18.0	12.2	12.9	12.9	10.3	7.2	8.1	9.2	46.9	34.0	32.4	30.3	16.6	12.7	11.3	9.9
Guinea-Bissau	15.8	16.1	35.1	37.9	11.8	5.9	6.0	6.4	33.8	32.0	27.6	27.9	17.4	12.6	9.2	7.4
Guyana	6.4	7.6	4.5	<2.5	12.1	6.9	6.4	6.5	13.9	18.6	11.3	9.5	4.7	3.9	3.3	2.8
Haiti	49.2	47.0	38.8	45.0	5.5	10.2	3.7	3.9 *	28.8	29.6	21.9	19.1 *	10.4	8.3	7.0	5.9
Honduras	22.4	21.0	15.5	18.7	1.3	1.4	1.3 *	1.9	35.5	29.8	24.3 *	18.7	3.7	2.7	2.1	1.7
Hungary	<2.5	<2.5	<2.5	<2.5	4.8 *	4.5 *	4.2 *	4.0 *	9.8 *	7.6 *	6.8 *	6.4 *	1.0	0.7	0.5	0.4
India	18.3	16.2	14.0	16.6	17.8	20.0	18.0	18.7	51.0	47.8	38.3	35.5	9.2	6.5	4.4	3.1
Indonesia	19.0	17.4	7.3	5.9	5.5	14.8	13.5	10.2	42.3	40.1	36.4	30.8	5.2	3.7	2.8	2.2
Iran (Islamic Republic of)	5.0	5.8	6.3	6.1	6.1	4.3 *	4.3	4.1 *	20.4	8.0 *	4.8	7.1 *	3.6	2.2	1.6	1.3
Iraq	21.7	16.9	17.3	16.3	6.6	5.8	4.4 *	3.0	28.1	27.5	16.7 *	12.6	4.4	3.7	3.0	2.5
Jamaica	7.6	9.4	8.0	8.3	3.0	2.6	3.5	3.2	7.2	6.2	7.7	4.6	2.1	1.8	1.5	1.2
Jordan	—	—	—	—	2.5	1.6	1.6 *	0.6	11.7	8.2	7.6 *	7.4	2.7	2.1	1.8	1.5
Kazakhstan	6.3	4.2	<2.5	<2.5	2.5	4.9	3.1	3.9 *	13.2	17.5	8.0	8.5 *	4.3	2.5	1.2	1.0
Kenya	32.3	27.0	20.0	27.8	7.4	6.9	5.6	4.9	40.8	35.5	28.0	17.6	9.9	6.3	4.6	3.7
Korea (DPR)	35.7	40.3	40.5	45.5	12.2	5.2	2.5	6.1 *	51.0	32.4	19.1	16.8	6.0	3.2	2.1	1.5
Kuwait	2.8	<2.5	<2.5	<2.5	2.2	2.2	3.0	2.3	4.0	5.1	5.2	6.4	1.3	1.1	0.9	0.9
Kyrgyzstan	14.6	8.5	5.8	4.8	2.6 *	1.4	2.8	2.0	22.0 *	22.6	12.9	11.8	5.0	3.4	2.2	1.7
Lao PDR	31.4	18.6	6.7	4.7	17.5	7.4	9.7	7.3 *	47.5	47.7	35.5	26.0 *	10.7	7.5	5.4	4.3
Latvia	4.6	<2.5	<2.5	<2.5	1.8 *	1.6 *	1.6 *	1.6	1.3 *	0.6 *	0.6 *	0.5	1.4	0.9	0.5	0.4
Lebanon	—	—	—	—	3.4 *	3.0 *	2.9 *	1.4	13.5 *	10.7 *	9.3 *	7.0	2.0	1.2	0.9	0.8

2000, 2008, 2015, 2023년 세계기아지수 산출 기초자료

국가	영양결핍률(%)				5세 미만 아동 저체중률(%)				5세 미만 아동 발육부진율(%)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00-'02	'07-'09	'14-'16	'20-'22	'98-'02	'06-'10	'13-'17	'18-'22	'98-'02	'06-'10	'13-'17	'18-'22	2000	2008	2015	2021
Lesotho	20.7	12.3	31.9	46.0	6.1 *	3.8	2.8	2.1	43.5 *	42.0	33.4	34.6	10.7	11.1	8.2	7.3
Liberia	36.3	29.5	35.9	38.4	7.4	7.9	4.3	3.4	45.3	39.6	30.1	29.8	18.9	10.8	8.8	7.6
Libya	3.5	5.6	6.1	8.4	8.8 *	6.5	10.2	8.1 *	32.0 *	21.0	38.1	29.8 *	2.8	1.9	1.3	1.1
Lithuania	<2.5	<2.5	<2.5	<2.5	6.5 *	5.2 *	5.2 *	4.8	10.1 *	5.6 *	5.1 *	4.1	1.1	0.7	0.5	0.3
Madagascar	34.1	30.7	40.4	51.0	9.6 *	8.8 *	7.5	7.2	54.2 *	49.4	48.9	39.8	10.5	7.5	6.6	6.6
Malawi	23.4	18.3	13.9	17.8	6.8	1.9	3.7	2.3	54.7	48.8	40.5	35.2	17.4	9.3	5.7	4.2
Malaysia	<2.5	3.5	6.1	2.7	15.3	13.2	8.0	9.7	20.7	17.5	17.7	21.8	1.0	0.8	0.8	0.8
Maldives	—	—	—	—	13.4	10.6	9.1	9.3 *	31.9	19.0	15.3	15.3 *	3.9	1.6	1.0	0.6
Mali	16.6	9.6	4.2	12.8	12.6	12.2	13.0	10.6	42.5	32.7	29.7	21.8	18.8	14.3	11.6	9.7
Mauritania	8.2	6.9	6.8	8.7	15.3	8.1	14.8	13.6	38.6	23.6	27.9	25.1	9.9	6.1	4.9	4.0
Mauritius	5.8	5.0	5.9	6.8	14.7 *	13.7 *	12.7 *	12.1 *	12.8 *	11.8 *	10.8 *	10.3 *	1.9	1.5	1.5	1.7
Mexico	3.2	4.4	3.9	<2.5	2.0	3.5	1.0	1.7	21.4	17.5	12.4	12.8	2.8	2.1	1.6	1.3
Moldova (Republic of)	24.4	27.7	<2.5	<2.5	4.2 *	3.3 *	3.0 *	2.7 *	13.4 *	8.1 *	6.4 *	5.2 *	3.1	1.8	1.6	1.4
Mongolia	30.5	21.9	7.6	8.0	7.1	1.7	1.2	0.9	29.8	15.4	7.3	9.4	6.4	3.1	1.9	1.5
Montenegro	—	<2.5	<2.5	<2.5	—	4.2	2.8	2.2	—	7.9	9.4	7.2	—	0.8	0.4	0.2
Morocco	6.3	5.7	3.8	6.3	4.0 *	3.4 *	3.0 *	2.3	25.3 *	19.2 *	15.1 *	14.2	5.2	3.5	2.4	1.8
Mozambique	36.9	29.2	39.5	30.5	8.1	4.2	4.4	3.9	50.7	43.5	42.3	37.5	17.1	11.3	8.4	7.0
Myanmar	38.6	18.1	4.1	3.8	10.7	7.9	6.6	7.4	40.8	35.1	29.4	26.7	8.9	9.9	5.2	4.2
Namibia	15.6	30.6	20.3	17.1	10.0	7.6	7.1	5.7 *	29.3	29.2	22.7	16.6 *	7.7	5.5	4.6	3.9
Nepal	24.1	13.1	6.3	5.4	11.3	12.7	11.5	7.7	56.1	49.1	37.2	24.8	7.9	5.1	3.6	2.7
Nicaragua	27.1	20.9	19.3	17.8	2.3	1.5	1.3 *	1.2 *	25.1	23.1	16.8 *	15.5 *	3.9	2.6	1.9	1.3
Niger	23.3	17.8	12.4	16.1	16.2	13.4	13.6	10.9	53.5	45.4	46.4	47.7	22.9	14.5	12.0	11.5
Nigeria	8.8	6.7	9.3	15.9	13.1 *	9.7 *	7.3	6.5	48.9 *	40.1 *	33.0	31.5	18.2	14.2	12.6	11.1
North Macedonia	7.4	2.8	3.6	3.6	1.8	2.4 *	2.4 *	3.4	8.0	6.8 *	5.8 *	4.3	1.6	1.2	1.1	0.5
Oman	12.4	9.0	6.3	2.8	7.8	7.1	7.5	6.6 *	15.8	9.8	14.1	10.8 *	1.6	1.2	1.1	1.0
Pakistan	20.8	15.2	12.1	18.5	14.1	11.7 *	10.5	7.1	41.4	41.1 *	45.0	37.6	10.8	9.1	7.6	6.3
Panama	24.5	14.1	7.3	5.3	1.4 *	1.2	1.1 *	1.1	21.6 *	19.0	14.5 *	15.9	2.6	2.1	1.7	1.4
Papua New Guinea	26.8	27.6	22.5	23.4	7.7 *	7.9 *	7.3 *	7.1 *	47.6 *	46.8 *	42.8 *	40.2 *	7.1	6.1	5.1	4.3
Paraguay	10.4	9.5	2.6	4.2	1.6	1.4 *	1.0	1.3 *	14.0 *	11.3 *	5.6	7.7 *	3.4	2.8	2.2	1.8
Peru	21.4	11.4	5.5	7.0	1.1	0.8	0.6	0.4	31.3	28.0	14.7	11.5	3.8	2.2	1.7	1.4
Philippines	18.9	11.3	9.1	5.2	8.0	6.6	6.8	5.7	38.3	32.0	33.1	29.6	3.8	3.3	3.0	2.6
Qatar	—	—	—	—	1.6 *	1.2 *	1.2 *	1.2 *	2.2 *	1.4 *	1.3 *	1.9 *	1.2	1.0	0.8	0.5
Romania	<2.5	<2.5	<2.5	<2.5	4.3	3.2 *	3.3 *	3.3 *	12.8	10.8 *	9.6 *	8.7 *	2.1	1.4	0.9	0.6
Russian Federation	4.0	<2.5	<2.5	<2.5	4.9	2.9 *	4.5 *	4.4 *	16.7 *	11.2 *	11.1 *	10.9 *	1.9	1.1	0.8	0.5
Rwanda	38.0	28.6	32.6	31.6	8.7	5.1	2.2	1.1	47.9	46.6	37.6	33.1	18.5	7.6	4.8	3.9
Saudi Arabia	5.4	5.8	4.6	3.8	6.6 *	5.8 *	5.5	4.4	18.1 *	15.2 *	13.7	10.8	2.2	1.4	0.9	0.7
Senegal	24.5	11.8	9.5	5.7	10.0	8.5 *	8.4	8.1	26.0	21.6 *	19.1	18.4	13.0	7.4	5.1	3.9
Serbia	—	<2.5	<2.5	<2.5	—	4.0	3.9	2.6	—	7.4	6.0	5.4	—	0.8	0.6	0.5
Sierra Leone	50.4	40.1	23.7	27.8	11.6	7.5	4.6	6.3	35.5	32.7	29.1	26.3	22.6	17.6	14.1	10.5
Slovakia	6.1	4.9	5.5	2.8	1.6 *	1.4 *	1.4 *	1.3 *	11.9 *	9.1 *	8.5 *	8.6 *	1.0	0.7	0.6	0.6
Solomon Islands	12.7	12.8	21.6	19.0	6.5 *	4.3	8.5	5.6 *	35.1 *	32.8	31.7	28.6 *	3.1	2.8	2.3	1.9
Somalia	70.6	70.5	58.2	48.7	19.3	14.3	—	—	29.2	25.3	—	—	17.3	16.7	13.4	11.2
South Africa	3.8	3.6	6.5	7.9	4.5	5.1	4.6	3.2 *	30.1	24.9	21.4	19.9 *	7.1	6.8	3.7	3.3
South Sudan	—	—	—	21.4	—	—	—	—	—	—	—	—	—	—	9.9	9.9
Sri Lanka	16.5	10.8	9.1	5.3	15.9	13.5	15.1	13.1 *	18.3	18.7	17.3	13.1 *	1.7	1.2	0.9	0.7
Sudan	—	—	9.7	11.9	—	—	16.3	13.7 *	—	—	38.2	38.5 *	—	—	6.6	5.5
Suriname	11.8	8.4	9.0	9.0	7.0	5.0	5.1 *	5.5	14.1	9.7	8.9 *	8.3	3.1	2.5	2.0	1.7
Syrian Arab Republic	7.6	3.9	11.1	27.8	4.9	10.9	12.9 *	10.8 *	24.3	28.3	34.0 *	27.0 *	2.3	1.9	4.2	2.2
Tajikistan	40.4	34.4	16.3	9.3	9.4	5.6	3.5	5.0 *	42.1	34.1	19.6	17.1 *	8.4	4.6	3.7	3.1
Tanzania (United Rep. of)	32.8	25.6	20.5	23.5	5.6	2.9	4.2	3.3	48.3	43.2	34.6	30.0	13.0	8.0	5.8	4.7
Thailand	17.3	10.6	6.9	5.2	7.6 *	4.7	5.4	7.7	21.7 *	15.7	10.5	13.4	2.2	1.5	1.1	0.8
Timor-Leste	42.8	33.0	27.6	22.3	13.7	21.3	12.2	8.3	55.7	57.2	49.2	46.7	—	7.7	6.2	5.1
Togo	31.6	25.8	19.8	17.4	12.1	6.0	6.6	4.7 *	28.8	26.9	27.6	22.2 *	12.0	9.5	7.6	6.3
Trinidad & Tobago	10.0	9.7	11.3	12.2	5.2	5.3 *	5.0 *	5.1 *	5.3	5.8 *	5.3 *	5.7 *	2.8	2.4	2.0	1.6
Tunisia	4.4	3.8	2.8	3.0	2.9	3.4	2.9 *	2.1	16.8	9.0	8.6 *	8.4	3.0	1.9	1.7	1.6
Türkiye	<2.5	<2.5	<2.5	<2.5	3.0	1.0	1.9	1.7	18.8	12.5	10.0	6.0	3.8	2.1	1.3	0.9
Turkmenistan	6.4	3.9	5.5	5.7	8.0	7.2	4.2	4.1	27.2	18.9	11.5	7.2	7.0	4.6	4.2	4.1
Uganda	18.4	20.7	30.2	31.6	5.0	5.3	4.2	3.6	44.9	38.3	31.8	25.4	14.6	8.7	5.6	4.2
Ukraine	3.0	<2.5	<2.5	4.8	8.2	2.6 *	2.6 *	2.7 *	22.9	16.8 *	17.0 *	16.4 *	1.8	1.3	0.9	0.8
United Arab Emirates	3.1	7.4	4.8	<2.5	2.7 *	3.9 *	4.0 *	3.9 *	3.1 *	2.7 *	2.7 *	2.6 *	1.1	0.9	0.8	0.6
Uruguay	3.4	<2.5	<2.5	<2.5	1.7	1.4	1.0	1.4	15.3	11.8	7.9	6.9	1.7	1.2	0.9	0.6
Uzbekistan	18.0	11.3	<2.5	<2.5	9.0	4.4	1.8	2.4	24.9	19.6	10.8	6.5	6.1	3.3	1.9	1.4
Venezuela (Boliv. Rep. of)	14.8	2.8	10.8	17.9	3.9	4.5	3.5 *	4.8 *	17.4	14.6	11.8 *	20.7 *	2.2	1.7	1.9	2.4
Viet Nam	19.5	12.6	7.1	5.0	9.0	9.4	6.4	4.7	42.7	30.8	24.6	19.6	3.0	2.4	2.2	2.1
Yemen	26.2	25.4	38.7	34.5	15.6 *	13.8	16.4	14.4 *	53.4 *	57.0	46.4	48.7 *	9.5	6.3	6.1	6.2
Zambia	50.4	54.0	33.0	29.8	5.9	5.6	6.2	4.2	59.2	45.8	40.0	34.6	15.6	8.8	6.8	5.8
Zimbabwe	33.0	28.7	32.6	38.4	8.3	2.4	3.3	2.9	33.8	35.1	27.1	23.5	9.6	9.5	6.0	5.0

참고: 색상은 다음 분류를 뜻한다. ■ = 매우 낮음 ■ = 낮음 ■ = 보통 ■ = 높음 ■ = 매우 높음
 — = 데이터 이용불가 또는 데이터 없음. 일부 국가는 해당 기간에 오늘날의 국경이 아니었음. *세계기아지수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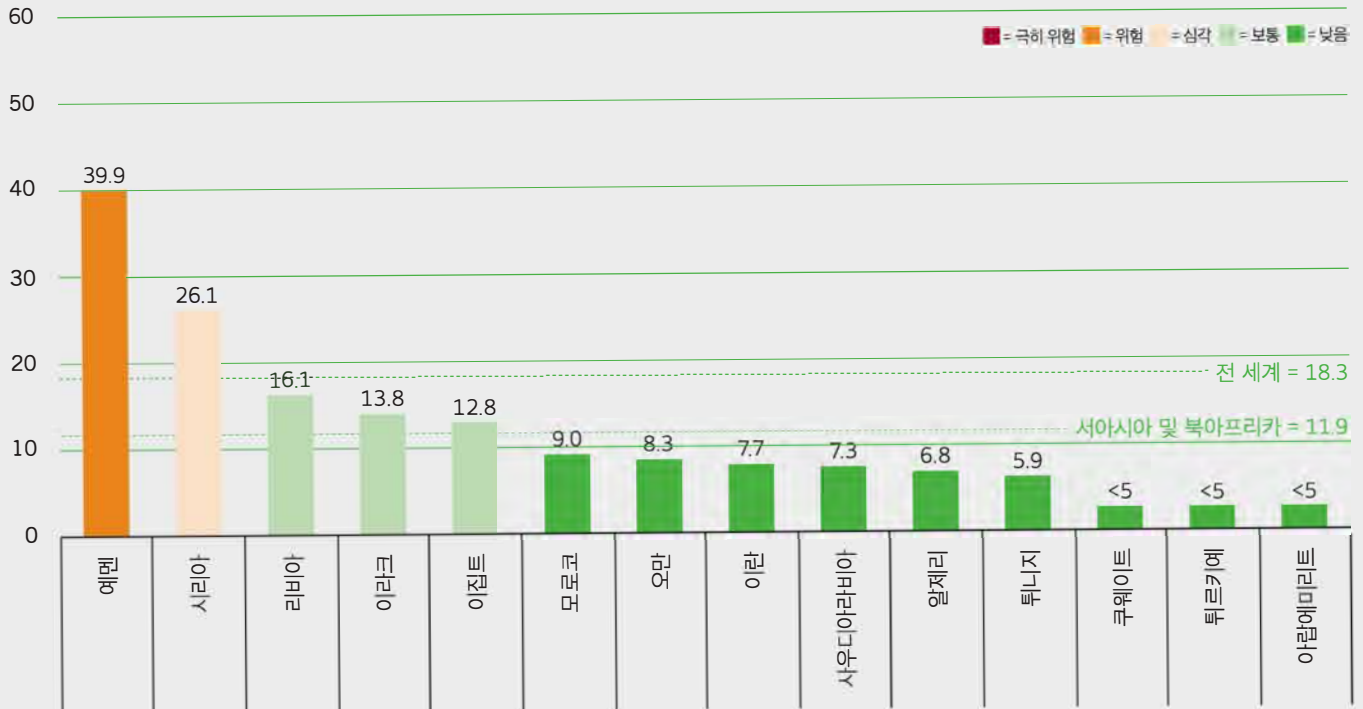
2000, 2008, 2015, 2023년 세계기아지수 점수 및 2015년 이후 변화 추이

국가	자료 출처	2000 '98-'02	2008 '06-'10	2015 '13-'17	2023 '18-'22	2015년 이후 절대값 변화	2015년 이후 변화율	국가	자료 출처	2000 '98-'02	2008 '06-'10	2015 '13-'17	2023 '18-'22	2015년 이후 절대값 변화	2015년 이후 변화율
Afghanistan		49.6	36.5	30.4	30.6	0.2	0.7	Lesotho		32.5	27.8	30.6	35.5	4.9	16.0
Albania		16.4	15.5	8.8	6.1	-2.7	-30.7	Liberia		48.0	36.4	32.9	32.2	-0.7	-2.1
Algeria		14.7	11.1	8.5	6.8	-1.7	-20.0	Libya		16.6	12.8	18.5	16.1	-2.4	-13.0
Angola		64.9	42.9	25.7	25.9	0.2	0.8	Lithuania		7.6	5.1	<5	<5	—	—
Argentina		6.8	5.5	5.3	6.4	1.1	20.8	Madagascar		42.4	36.6	38.9	41.0	2.1	5.4
Armenia		19.2	11.7	6.3	5.6	-0.7	-11.1	Malawi		43.1	29.2	22.9	21.1	-1.8	-7.9
Azerbaijan		24.9	15.0	9.3	6.9	-2.4	-25.8	Malaysia		15.4	13.7	12.0	12.5	0.5	4.2
Bahrain		—	—	—	—	—	—	Maldives		—	—	—	—	—	—
Bangladesh		33.8	30.6	26.2	19.0	-7.2	-27.5	Mali		41.9	32.2	27.1	25.6	-1.5	-5.5
Belarus		<5	<5	<5	<5	—	—	Mauritania		30.5	18.8	22.4	21.0	-1.4	-6.2
Benin		33.9	26.4	23.3	22.6	-0.7	-3.0	Mauritius		15.4	13.9	13.5	13.6	0.1	0.7
Bhutan		—	—	—	—	—	—	Mexico		10.2	9.9	6.7	6.0	-0.7	-10.4
Bolivia (Plurinat. State of)		27.6	22.1	14.7	15.6	0.9	6.1	Moldova (Rep. of)		18.6	17.0	<5	<5	—	—
Bosnia & Herzegovina		9.4	6.5	5.3	<5	—	—	Mongolia		29.9	16.7	7.4	7.5	0.1	1.4
Botswana		27.2	26.8	22.2	19.9	-2.3	-10.4	Montenegro		—	5.2	<5	<5	—	—
Brazil		11.7	6.8	5.4	6.7	1.3	24.1	Morocco		15.8	12.2	9.1	9.0	-0.1	-1.1
Bulgaria		8.6	7.7	7.3	5.4	-1.9	-26.0	Mozambique		48.2	35.6	37.0	30.5	-6.5	-17.6
Burkina Faso		45.0	33.7	28.0	25.5	-2.5	-8.9	Myanmar		40.2	29.7	17.3	16.1	-1.2	-6.9
Burundi		—	—	—	—	—	—	Namibia		26.4	29.2	22.2	18.0	-4.2	-18.9
Cabo Verde		15.7	12.4	14.6	12.4	-2.2	-15.1	Nepal		37.2	29.0	21.3	15.0	-6.3	-29.6
Cambodia		41.4	25.6	19.0	14.9	-4.1	-21.6	Nicaragua		22.3	17.5	14.6	13.0	-1.6	-11.0
Cameroon		36.0	29.0	20.7	18.6	-2.1	-10.1	Niger		53.3	39.5	35.2	35.1	-0.1	-0.3
Central African Republic		48.2	43.7	44.0	42.3	-1.7	-3.9	Nigeria		39.9	31.2	27.8	28.3	0.5	1.8
Chad		50.6	49.9	40.1	34.6	-5.5	-13.7	North Macedonia		7.5	5.3	5.3	<5	—	—
Chile		<5	<5	<5	<5	—	—	Oman		14.8	11.2	11.2	8.3	-2.9	-25.9
China		13.4	7.1	<5	<5	—	—	Pakistan		36.7	31.3	28.8	26.6	-2.2	-7.6
Colombia		11.0	10.2	7.5	7.0	-0.5	-6.7	Panama		18.6	13.0	8.7	7.9	-0.8	-9.2
Comoros		38.2	30.4	24.0	22.7	-1.3	-5.4	Papua New Guinea		33.5	32.9	28.5	27.4	-1.1	-3.9
Congo (Republic of)		34.6	32.4	26.2	28.0	1.8	6.9	Paraguay		11.8	10.1	5.1	6.0	0.9	17.6
Costa Rica		6.9	<5	<5	5.1	—	—	Peru		20.6	14.0	7.7	7.2	-0.5	-6.5
Côte d'Ivoire		32.5	36.0	22.1	20.6	-1.5	-6.8	Philippines		25.0	19.1	18.3	14.8	-3.5	-19.1
Croatia		<5	<5	<5	<5	—	—	Qatar		—	—	—	—	—	—
Dem. Rep. of the Congo		46.3	40.2	36.4	35.7	-0.7	-1.9	Romania		7.9	5.8	5.1	<5	—	—
Djibouti		44.4	33.9	29.6	23.0	-6.6	-22.3	Russian Federation		10.2	5.8	6.3	5.8	-0.5	-7.9
Dominican Republic		15.1	13.9	9.4	8.6	-0.8	-8.5	Rwanda		49.7	33.1	28.3	25.4	-2.9	-10.2
Ecuador		19.7	18.1	11.7	14.5	2.8	23.9	Saudi Arabia		12.3	10.6	9.1	7.3	-1.8	-19.8
Egypt		16.4	16.9	15.2	12.8	-2.4	-15.8	Senegal		34.3	21.8	18.0	15.0	-3.0	-16.7
El Salvador		14.7	12.0	9.8	8.1	-1.7	-17.3	Serbia		—	5.8	<5	<5	—	—
Equatorial Guinea		—	—	—	—	—	—	Sierra Leone		57.4	45.4	32.8	31.3	-1.5	-4.6
Eritrea		—	—	—	—	—	—	Slovakia		7.2	5.7	5.7	<5	—	—
Estonia		<5	<5	<5	<5	—	—	Solomon Islands		20.2	18.2	23.4	19.6	-3.8	-16.2
Eswatini		24.7	25.0	19.3	17.3	-2.0	-10.4	Somalia		63.6	59.2	—	—	—	—
Ethiopia		53.3	40.5	26.5	26.2	-0.3	-1.1	South Africa		18.0	16.8	13.9	13.0	-0.9	-6.5
Fiji		9.3	8.6	10.4	9.7	-0.7	-6.7	South Sudan		—	—	—	—	—	—
Gabon		21.0	20.2	17.3	18.7	1.4	8.1	Sri Lanka		21.7	17.6	17.1	13.3	-3.8	-22.2
Gambia		29.2	24.9	24.3	19.7	-4.6	-18.9	Sudan		—	—	28.5	27.0	-1.5	-5.3
Georgia		12.1	6.6	<5	<5	—	—	Suriname		15.1	11.0	10.6	10.4	-0.2	-1.9
Ghana		28.5	22.2	15.7	13.7	-2.0	-12.7	Syrian Arab Republic		13.9	16.2	23.9	26.1	2.2	9.2
Guatemala		28.6	24.0	20.6	19.1	-1.5	-7.3	Tajikistan		40.1	29.9	16.9	13.7	-3.2	-18.9
Guinea		40.2	29.3	28.4	27.1	-1.3	-4.6	Tanzania (United Rep. of)		40.7	30.2	24.6	23.2	-1.4	-5.7
Guinea-Bissau		37.7	29.6	33.3	33.0	-0.3	-0.9	Thailand		18.7	12.2	9.4	10.4	1.0	10.6
Guyana		17.2	15.1	11.3	9.3	-2.0	-17.7	Timor-Leste		—	46.5	35.9	29.9	-6.0	-16.7
Haiti		40.3	40.2	30.1	31.1	1.0	3.3	Togo		38.2	29.6	25.7	21.1	-4.6	-17.9
Honduras		22.0	19.2	15.0	14.9	-0.1	-0.7	Trinidad & Tobago		11.0	10.7	10.7	10.8	0.1	0.9
Hungary		6.7	5.6	5.0	<5	—	—	Tunisia		10.3	7.4	6.4	5.9	-0.5	-7.8
India		38.4	35.5	29.2	28.7	-0.5	-1.7	Türkiye		10.1	5.7	<5	<5	—	—
Indonesia		26.0	28.5	21.9	17.6	-4.3	-19.6	Turkmenistan		20.3	14.5	11.4	10.3	-1.1	-9.6
Iran (Islamic Republic of)		13.7	8.8	7.7	7.7	0.0	0.0	Uganda		35.0	29.0	27.8	25.2	-2.6	-9.4
Iraq		23.6	20.3	16.5	13.8	-2.7	-16.4	Ukraine		13.0	7.1	7.1	8.2	1.1	15.5
Jamaica		8.5	8.6	8.6	7.5	-1.1	-12.8	United Arab Emirates		<5	6.8	5.6	<5	—	—
Jordan		—	—	—	—	—	—	Uruguay		7.6	5.3	<5	<5	—	—
Kazakhstan		11.3	11.0	5.7	5.5	-0.2	-3.5	Uzbekistan		24.2	14.9	5.9	5.0	-0.9	-15.3
Kenya		36.7	29.5	22.5	22.0	-0.5	-2.2	Venezuela (Boliv. Rep. of)		14.6	8.8	11.1	17.3	6.2	55.9
Korea (DPR)		39.5	30.4	24.8	27.8	3.0	12.1	Viet Nam		26.1	20.1	14.5	11.4	-3.1	-21.4
Kuwait		<5	<5	<5	<5	—	—	Yemen		41.4	37.8	42.1	39.9	-2.2	-5.2
Kyrgyzstan		17.5	12.9	9.1	7.5	-1.6	-17.6	Zambia		53.2	44.9	33.2	28.5	-4.7	-14.2
Lao PDR		44.3	30.4	21.8	16.3	-5.5	-25.2	Zimbabwe		35.5	30.7	27.6	28.0	0.4	1.4
Latvia		<5	<5	<5	<5	—	—								

참고: — = 데이터 이용불가 또는 데이터 없음. 불완전한 데이터가 있는 일부 국가에 대한 기아심각도는 표 A.3 참조. 일부 국가는 해당 기간에 오늘날의 국경이 아니었음.

■ = 낮음 □ = 보통 □ = 심각 □ = 위험 ■ = 극히 위험

서아시아 및 북아프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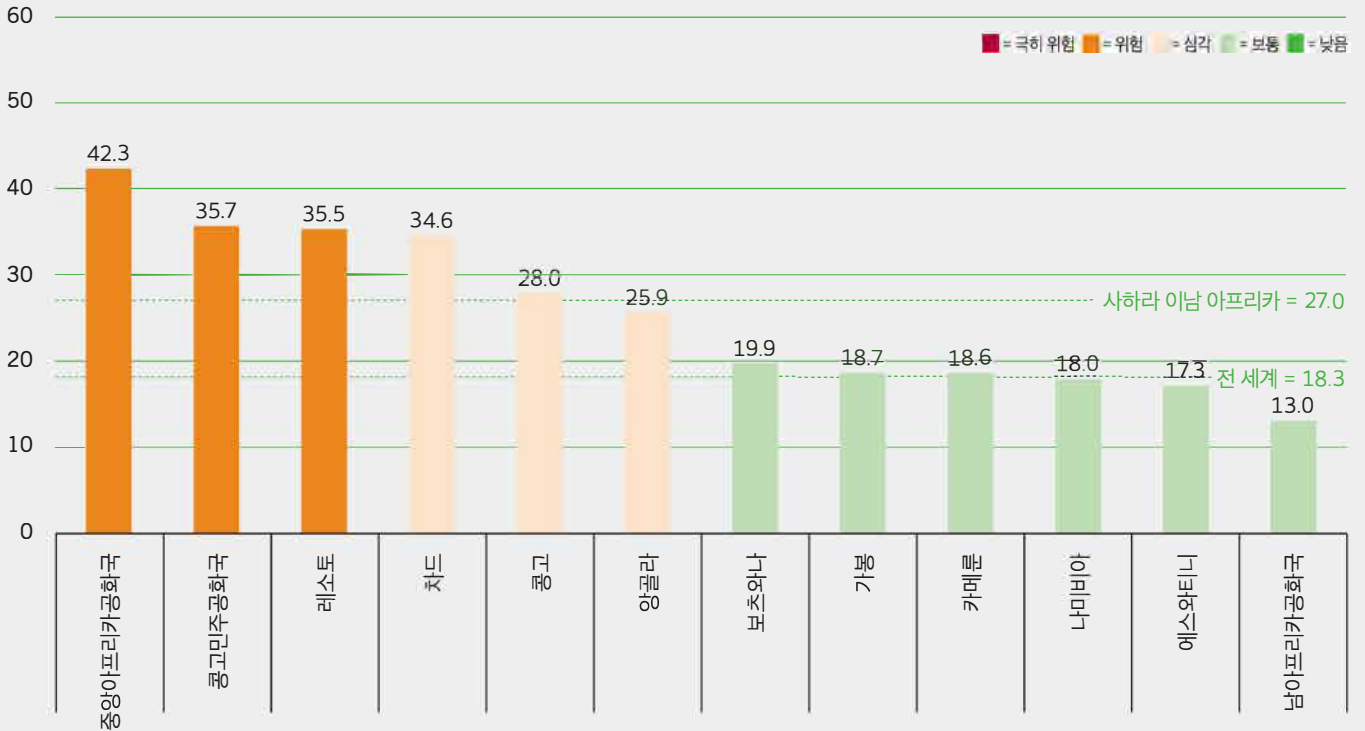


참고: 바레인, 요르단, 레바논, 카타르는 서아시아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 속하지만 GHI 점수 계산을 위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표시되지 않았다. 이들 국가에 대한 기존 자료와 잠정 지표값은 지역 및 글로벌 GHI 점수 계산에 포함되었다. 자료가 불완전한 국가에 대한 기타 심각도 잠정 지정에 관한 내용은 표 A.3을 참조. GHI 점수가 5점 미만인 국가는 알파벳 순서로 표시하였다.

서아프리카



중앙 및 남아프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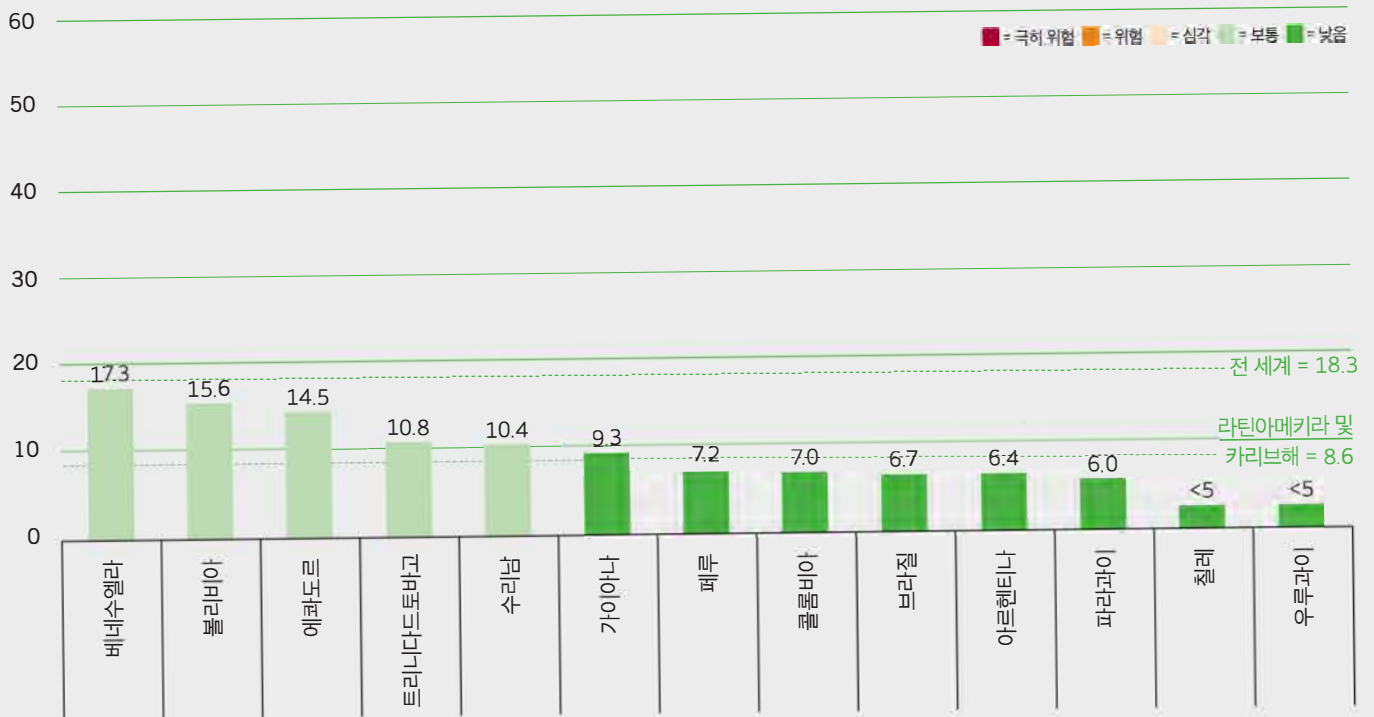
참고: 적도기니는 중앙아프리카에 속하지만 GHI 점수 계산을 위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표시되지 않았다. 적도기니에 대한 기존 데이터와 잠정 지표값은 지역 및 글로벌 GHI 점수 계산에 포함되었다. 불완전한 데이터가 있는 국가에 대한 기타 심각도 잠정 지정에 대해서는 표 A.3을 참조.

동아프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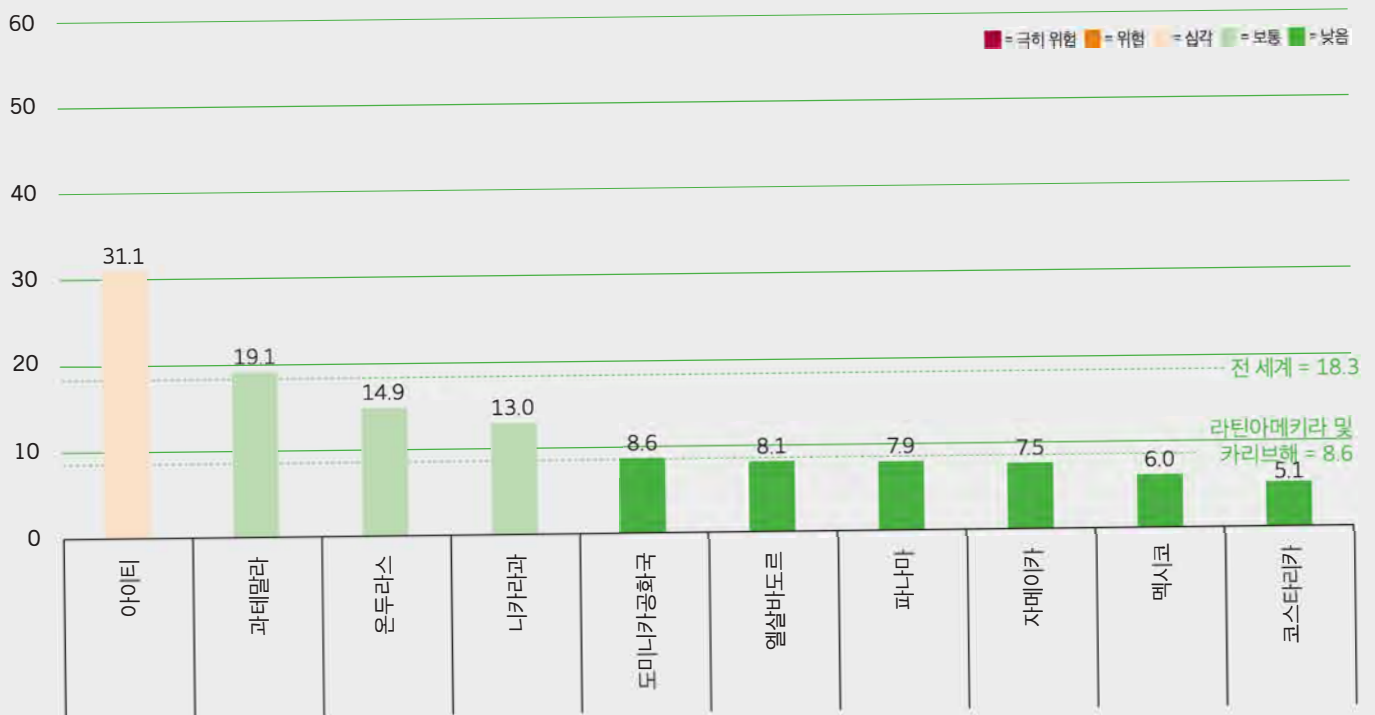
참고: 부룬디, 에리트레아, 소말리아, 남수단은 동아프리카에 속하지만 GHI 점수 계산을 위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표시되지 않았다. 해당 국가에 대한 기존 데이터와 잠정 지표값은 지역 및 글로벌 GHI 점수 계산에 포함되었다. 불완전한 데이터가 있는 국가에 대한 기타 심각도 잠정 지정에 대해서는 표 A.3을 참조.

남아메리카



참조: GHI 점수가 5점 미만인 국가는 알파벳순으로 표시.

중앙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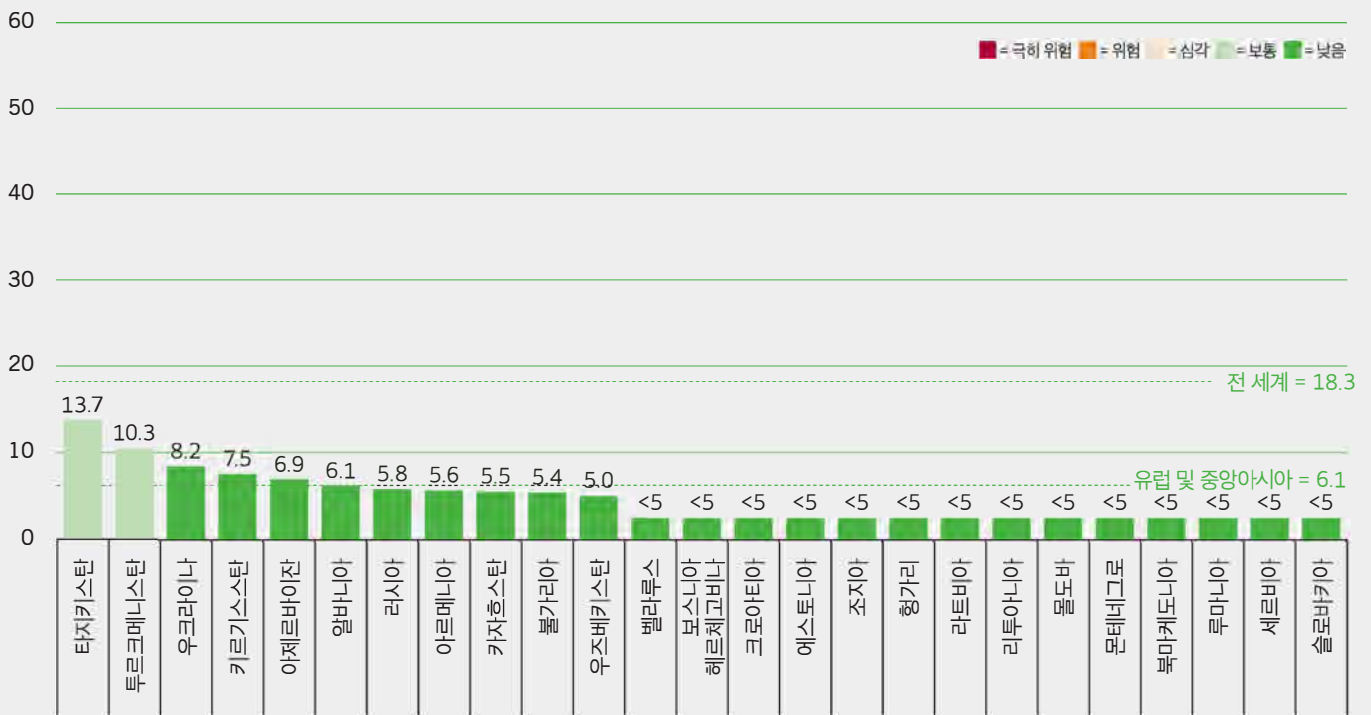


남아시아,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참고: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는 그림 1.3의 목적상 남아시아에 속하며, 나머지 국가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속한다.
부탄과 몰디브는 GHI 점수 계산을 위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표시되지 않았다. 이들 국가에 대한 기존 데이터와 잠정 지표값은 지역 및 글로벌 GHI 점수 계산에 포함되었다.
불완전한 데이터가 있는 국가에 대한 기타 심각도 잠정 지정에 대해서는 표 A.3을 참조.

유럽 및 중앙아시아



참조: GHI 점수가 5점 미만인 국가는 알파벳순으로 표시

세계기아지수 산출 공식

세계기아지수 점수 산출 공식

세계기아지수 점수는 세 단계 과정을 거쳐 산출한다.

<p>첫째, 네 가지 구성 지표값은 각국에서 입수한 데이터로 결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결핍 인구 비율 → 5세 미만 저체중 아동 비율(신장 대비 저체중) → 5세 미만 발육부진 아동 비율(연령 대비 저성장) → 5세 이전에 사망하는 아동 비율(아동 사망률) 	<p>1단계 각 구성 지표값을 결정한다.</p> <p>PUN: 영양결핍 인구의 비율(%) CWA: 5세 미만 허약 아동의 비율(%) CST: 5세 미만 발육부진 아동의 비율(%) CM: 5세 이전에 사망하는 아동의 비율(%)</p>
<p>둘째, 1988년 이후 전 세계에서 관찰한 해당 지표의 가장 높은 국가 값보다 조금 높게 정한 기준값을 바탕으로 네 가지 구성 요소 지표 각각에 표준 점수를 부여한다. 예를 들면 이 기간에 추정된 가장 높은 영양결핍값이 76.5%면 표준화를 위한 기준은 그보다 조금 더 높은 80%다. 해당 연도에 한 국가의 영양결핍률이 40%라면 그해 영양결핍 표준점수는 50점이다. 다시 말하면 그 국가는 영양결핍이 없는 상태와 최고 수준 사이에서 대략 절반에 위치한다.</p>	<p>2단계 구성 지표 표준화</p> $\text{표준 PUN} = \frac{\text{PUN}}{80} \times 100$ $\text{표준 CWA} = \frac{\text{CWA}}{30} \times 100$ $\text{표준 CST} = \frac{\text{CST}}{70} \times 100$ $\text{표준 CM} = \frac{\text{CM}}{35} \times 100$
<p>셋째, 표준 점수를 합산해서 각국의 세계기아지수 점수를 산출한다. 영양결핍과 아동 사망률은 각각 세계기아지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반면 아동의 영양 부족 지표인 발육부진과 저체중은 각각 점수의 6분의 1을 차지한다.</p>	<p>3단계 구성 지표 합산</p> $\begin{aligned} & \frac{1}{3} \times \text{표준 PUN} \\ & + \frac{1}{6} \times \text{표준 CWA} \\ & + \frac{1}{6} \times \text{표준 CST} \\ & + \frac{1}{3} \times \text{표준 CM} \\ \hline & = \text{세계기아지수 점수} \end{aligned}$

2023 세계기아지수 산출에 사용한 네 개의 지표 데이터 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영양결핍: 유엔식량농업기구의 2000-2022년 자료를 사용했다(FAO 2023).

아동 저체중 및 발육부진: 아동 영양 부족 지표 데이터는 2022년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인구보건조사(DHS)와 복합요인조사(MICS)의 자료를 사용했다(WHO 2023; UNICEF et al. 2023a; UNICEF 2023a, 2013, and 2009; MEASURE DHS 2023).

아동 사망: 유엔 영유아사망률추정합동기구(UN IGME)의 2000-2021년 자료를 사용했다(UN IGME 2023a).

PARTNERS



컨선월드와이드 소개

컨선월드와이드는 비정부 국제 인도주의 단체로, 세계 최빈국의 극심한 빈곤의 고통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극빈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컨선월드와이드가 하는 일

우리의 미션은 극심한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지속적인 지원 없이도 삶을 개선하고, 개선된 삶이 지속되며 확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컨선월드와이드가 일하는 방식

우리는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인 개발 협력 사업을 통해 회복력을 기르고, 긴급 상황에 대응하며, 개발 교육과 옹호 활동을 통해 빈곤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컨선월드와이드의 비전

우리는 누구도 빈곤, 두려움, 억압 속에서 살지 않는 세상, 모두가 적절한 생활수준과 건강하고 창의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필수적인 기회와 선택권을 누리는 세상, 모두가 존엄을 지키고 존중받는 세상을 믿는다.



세계기아원조(WHH) 소개

세계기아원조(Welthungerhilfe)는 독일에서 가장 큰 비정부 개발 및 인도주의 단체 중 하나로 1962년에 설립되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시작된 기아 퇴치를 위한 최초의 글로벌 이니셔티브 중 하나인 '기아로부터의 자유 캠페인'의 독일 지부이다.

세계기아원조(WHH)가 하는 일

우리는 신속한 긴급 구호부터 재건, 국내 및 국제 파트너 기관과의 장기 개발 협력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적극적인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아 퇴치를 위해 필요한 정치적 변화를 옹호한다. 또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

세계기아원조(WHH)가 일하는 방식

우리의 목표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생계자립이므로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일한다. 우리는 근본적인 구조를 강화하고 현지 파트너 기관과 협력하여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고 국내 및 국제 정책 입안자들과 함께 옹호 활동을 펼친다. 이를 통해 기아와 빈곤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다. 다른 많은 단체와 공동의 임무를 수행하며 더 이상 이런 활동이 불필요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세계기아원조(WHH)의 비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 정의와 존엄성 속에서 자기결정적 삶을 살고 기아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18 YEARS OF TRACKING WORLD HUNGER

2006년 이래로, 세계기아지수는 전 세계적, 지역별, 국가별로 기아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전후 국가 아프가니스탄과 시에라리온 사례 연구



급성 영양 물량과 만성 기아를 줄이기 위한 기아지수



기아와 빈곤의 악순환



금융 위기와 젠더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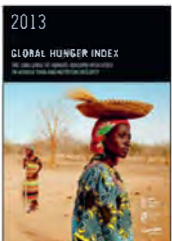
아동 영양 부족 위기



가격 폭등과 과도한 식량 가격 변동 억제



토지, 식수, 에너지 압박에서 지속 가능한 식량 안보 확보



식량과 영양안보를 이루는 복원력 증진



보이지 않는 기아의 위협



무력 충돌과 기아의 위협



기아가 없는 세상



기아의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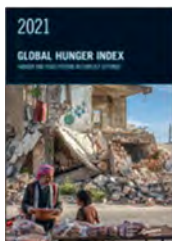
강제이주와 기아



기후변화와 기아의 위협



제로 헝거를 향한 10년 보간과 지속가능한 식량시스템의 연결



분쟁 상황 속 기아와 식량시스템



식량시스템 변혁과 지역 거버넌스



다음 세대와 함께 만들어가는 식량시스템

발행일 2023년 11월 3일
발행처 재단법인 컨선월드와이드 한국
발행인 이준모

IMPRINT

Deutsche Welthungerhilfe e. V.

Friedrich-Ebert-Straße 1
53173 Bonn, Germany
Tel. +49 228-2288-0
Fax +49 228-2288-333
www.welthungerhilfe.de

Secretary General / CEO:

Mathias Mogge

Concern Worldwide

52-55 Lower Camden Street
Dublin 2, Ireland
Tel. +353 1-417-7700
Fax +353 1-475-7362
www.concern.net

Chief Executive Officer:

David Regan

Recommended citation: von Grebmer, K., J. Bernstein, W. Geza, M. Ndlou, M. Wiemers, L. Reiner, M. Bachmeier, A. Hanano, R. Ní Chéilleachair, T. Sheehan, C. Foley, S. Gitter, G. Larocque, and H. Fritschel. 2023. *2023 Global Hunger Index: The Power of Youth in Shaping Food Systems*. Bonn: Welthungerhilfe (WHH); Dublin: Concern Worldwide.



Design: muehlhausmoers corporate communications gmbh, Cologne, Germany

Printing: Köllen Druck+Verlag GmbH, Bonn, Germany

Authors:

Welthungerhilfe (WHH): Miriam Wiemers (Senior Policy Advisor), Laura Reiner (Senior Policy Advisor), Marilena Bachmeier (Project Assistant), Asja Hanano (Head of Policy and External Relations); Concern Worldwide: Réiseal Ní Chéilleachair (Head of International Advocacy), Connell Foley (Director of Strategy, Advocacy, and Learning); Tim Sheehan (Senior Research and Communications Officer); Independent Consultants: Klaus von Grebmer, Jill Bernstein, Heidi Fritschel, Grace Larocque; Towson University: Seth Gitter.

Guest Authors:

Wendy Geza (Assistant Researcher, Centre for Transformative Agricultural and Food Systems, University of KwaZulu-Natal), Mendy Ndlou (PhD Candidate, Centre for Transformative Agricultural and Food Systems, University of KwaZulu-Natal)

Editor:

Heidi Fritschel

Ordering number: 460-9639

ISBN: 978-1-7396018-3-6

Cover photography:

Melanie (age 18) works in a plant that processes pepper and ginger in Farafangana, Madagascar. Many of the plant employees are single mothers, and this employment provides them with a stable income to feed their children. Laura Thiesbrummel/Welthungerhilfe, 2018.

Other photo credits:

Page 2: Peter Caton/Welthungerhilfe, South Sudan, 2022; page 6: Simon Opladen/Welthungerhilfe, Nepal, 2022; page 22: Darren Vaughan/Concern Worldwide, Niger, 2023; page 27: Fatou Kamara/Welthungerhilfe, Mali, 2023; page 28: Gavin Douglas/Concern Worldwide, Bangladesh, 2023; page 31: Tim Sheehan/Concern Worldwide, Haiti, 2022; page 33: Thierno Diallo/Welthungerhilfe, Central African Republic, 2023; Ludovic Ngbika/Welthungerhilfe, Central African Republic, 2020; page 34: Otros/Ayuda en Acción, Ecuador, 2023; page 36: Stefanie Gliński/Welthungerhilfe, Türkiye, 2023.

Acknowledgments:

We gratefully acknowledge the Statistics Division (ESS) of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as well a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for their invaluable support throughout the data compilation process. We thank the staff of Concern Worldwide and Welthungerhilfe (WHH) for their contributions, and especially Dennis Isaak Lux for his assistance on the GHI team. We thank Gershon Feder for conducting a peer review of this report. We appreciate Grant Price's careful review of the report. Finally, we gratefully acknowledge Doris Wiesmann for her ongoing support and guidance for the GHI.

Disclaimer:

The boundaries and names shown and the designations used on the map(s) do not imply the expression of any opinion whatsoever on the part of Welthungerhilfe (WHH) or Concern Worldwide concerning the legal status of any country, territory, city or area or of its authorities, or concerning the delimitation of its frontiers and boundaries.



Creative Commons:

This publication is available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License (CC BY-NC-ND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Website:

www.globalhungerindex.org

To learn more, visit www.globalhungerindex.org, #GHI2023



Alliance 2015

towards the eradication of poverty

Deutsche Welthungerhilfe e. V.

Friedrich-Ebert-Straße 1
53173 Bonn, Germany
Tel. +49 228-2288-0
Fax +49 228-2288-333
www.welthungerhilfe.de

Member of Alliance2015
Concern Worldwide

52-55 Lower Camden Street
Dublin 2, Ireland
Tel. +353 1-417-7700
Fax +353 1-475-7362

www.concern.net
Member of Alliance2015

18세 멜라니는 마다가스카르 파라팡가나에 있는 고추와 생강을 가공하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공장 직원의 상당수는 미혼모이며, 이 작업은 자녀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합니다.
© Laura Thiesbrummel/Welthungerhilfe, 2018.